

18세기 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및 시문창화 수록 양상*

- 신묘·기해통신사 사행록을 대상으로

장진엽**

<차 례>

1. 머리말
2. 신묘·기해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및 시문창화 수록 현황
 - 1) 신묘통신사 : 『동사록』(조태억)·『동사일기』·『동사록』(김현문)
 - 2) 기해통신사 : 『해사일록』·『부상기행』·『해유록』
3. 신묘·기해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및 시문창화 수록 양상
 - 1) 필담창화의 증대 상황 반영
 - 2) ‘필담’을 기록한다는 의식의 출현
 - 3) 요약적 서술과 대화 장면의 재현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신묘·기해통신사 사행록을 대상으로 18세기 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및 시문창화 수록 양상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각 시기 사행록의 필담 수록 현황을 파악하였다. 신묘통신사 사행록은 모두 3종이다. 조태억의 『東槎錄』에는 74제 95수의 창화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임수간의 『東槎日記』는 독립적인 필담록인 <江關筆談>을 수록하고 있다. 김현문의 『東槎錄』은 三使의 필담창화 상황 중 주요한 일들만을 기록하였다. 한편 기해통신사 정사 홍치중의 『海槎日錄』은 외교 절차의 조율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신을 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정후교의 『扶桑紀行』은 일기 부분에서 각 지역에서의 필담창화 사실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하권에 74수의 창화시 및 일본인들의 원운 11수를 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930)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록했다. 신유한의 『海游錄』은 일록에서 약 70건, 〈聞見雜錄〉에서 36건의 필담 및 창화 관련 기록을 수록하고 있어 그전까지의 기록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신묘·기해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수록 양상을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시기 사행록은 17세기에 비해 필담창화 관련 기록을 훨씬 더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필담 교류가 성행한 정황을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로 ‘필담’을 기록한다는 의식이 출현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시기 사행록에는 ‘筆談’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는 口語와 구별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필담의 유용성을 인식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인식은 필담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내용, 즉 ‘무엇’을 말했는지에 주목할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는 서술방식 측면의 특징이다. 18세기 사행록의 필담 서술 방법은 요약적 진술과 대화 장면 복원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이 시기 사행록에서 전반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후자는 『부상기행』에서 일부 나타나고 『해유록』에서 전면적으로 이용되었다. 『해유록』은 특히 사행록의 저술 목적과 관련하여 필담 기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원증거의 『乘槎錄』 등 후대 사행록으로 계승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18세기 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기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시기에 들어 ‘筆談’이라는 의사소통 수단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물을 ‘기록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후대의 통신사 사행록, 그리고 연행록의 필담 기록을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볼 직하다.

□ 필담, 필담창화, 통신사 사행록, 18세기, 신묘통신사, 기해통신사, 해유록

1. 머리말

통신사 필담창화집 연구는 90년대 초중반 이원식¹⁾과 이혜순²⁾의 연구를

1) 이원식, 「朝鮮通信使의 訪日과 文化交流 : 使行錄과 筆談唱和集을 中心으로」, 『모산학보』 2, 동아인문학회, 1991.

필두로 하여 2000년대 초에 활발해졌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제출되고 있다. 다만 연구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만큼 기초연구, 즉 자료 현황의 파악과 정리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7년과 2009년에 다카하시 마사히코(高橋昌彦)가 현전하는 필담창화집의 전체 목록과 서지를 소개한 바 있으며,³⁾ 2013년부터 출판된 《조선후기 통신사 필담창화집 번역총서》(보고사, 2013~2021)의 각 권에서도 현전 자료의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이 총서는 현재 43권까지 출판되었으며, 각 권에 원문과 번역문, 해제, 그리고 영인본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43권까지의 수록 자료는 58종이다. 또,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탈〉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EBZ-2101)에서 150여 종의 필담창화집에 대한 간략한 해제를 제공하고 있다. 근래에는 18세기 통신사 필담창화집에 대한 상세한 해제집⁴⁾이 출판되기도 했다.

이처럼 통신사 필담에 관한 기초연구는 꾸준히 그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현재도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통신사 필담’ 또는 ‘통신사 필담창화’의 기록 전반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제작된 필담창화집과 함께 조선인들이 저술한 사행록에 수록된 필담 및 시문창화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신사 사행록에는 일본인과의 시문창화 및 대화의 기록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 방식은 필담창화집과 다르다. 필담창화집은 실제 필담지를 대상으로 그것을 편집, 정리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반면 사행록에 수록된 필담은 저자가 당시의 대화 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해낸 것들이다. 물론 창화시나 서신은 원본 그대로 수록했다.

2)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3) 高橋昌彦, 「朝鮮通信使唱和集目錄稿」(一), 『福岡大學研究部論集-A. 人文科學編』 6(8), pp.17~35., 福岡大學, 2007; 高橋昌彦, 「朝鮮通信使唱和集目錄稿」(二), 『福岡大學研究部論集-A. 人文科學編』 9(1), 福岡大學, 2009, pp.21~40.

4) 박희병·이효원 외(2019), 『18세기 통신사 필담1 - 1711·1719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사행록 저자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창화시와 필담을 적극적으로 수록하기도 하고, 필담을 나눴다는 사실만을 적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기록 방식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록들의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통신사 필담 전체 자료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필자는 17세기 통신사 사행록 수록 필담 및 시문창화 관련 기록에 대한 조사 연구⁵⁾를 수행한 바 있다. 본고는 그 후속 작업으로서 18세기 사행록 자료를 대상으로 필담과 시문창화 기록의 수록 양상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세기 사행은 모두 네 차례로, 본고에서 다룬 자료는 18세기 초의 두 번의 사행, 즉 신묘사행(1711)과 기해사행(1719)의 사행록이다. 이전 연구에서 필자는 열두 차례의 통신사를 ‘필담 교류의 진전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첫 단계는 필담 교류의 ‘맹아기’로서 제1차부터 3차까지의 회답겸쇄환사 시기이다. 둘째 단계는 ‘성립기’로서 제4차 병자사행(1636)부터 제6차 을미사행(1655)까지이다. 셋째 단계는 ‘발전기’로서 제7차 임술사행(1682), 제8차 신묘사행(1711), 제9차 기해사행(1719)이다. 넷째 단계는 ‘전성기’로서 제10차 무진사행(1748)과 제11차 계미사행(1763)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 제12차 신미사행(1811)은 ‘축소기’이다. 발전기 중에서 임술사행은 ‘발전기(초기)’의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하며, 본고에서 다룬 신묘, 기해사행은 본격적인 발전기에 속한다.⁶⁾

위 단계는 실제 필담 교류의 진전도에 따른 시기 구분으로서 일본에서의 필담창화집 편집·출판 상황을 주요하게 참조한 것이다. 그러나 사행록의 필담 수록 양상이 반드시 위의 단계 구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5) 장진엽, 「동아시아 필담문헌 기초연구 : 17세기 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및 시문창화 수록 양상」, 『온지논총』 71, 온지학회, 2022.

6) 본고에서 사용하는 ‘필담 교류’라는 용어는 ‘필담을 매개로 한 교류’라는 뜻으로, 필담과 함께 이루어졌던 시문창화 및 서신 교환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통신사 필담 교류의 개념 및 그 발전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장진엽(2022), 위의 논문 참조.

임술통신사 사행록은 당시 필담 교류의 구체적 면모를 담고 있지 못한데, 이는 이 시기 사행록의 저자들이 필담 교류의 주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사행록의 필담 수록 양상은 각 시기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행록의 필담 수록 방식이 실제 필담 교류의 정황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며, 실제 교류의 진전 정도와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논의에 앞서 시기 구분을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8세기 사행록의 필담 수록 양상에 관한 전반적인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는 전성기에 해당하는 무진·계미통신사 자료까지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고는 전체적인 특징뿐 아니라 각 시기 사행록의 필담 수록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우선 발전기에 해당하는 두 사행의 기록을 검토하여 각 시기의 필담 수록 현황과 그 방식을 세밀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또한 17세기에서 18세기로 들어가면서 발생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러한 변화는 이후 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서술방식의 방향을 결정한 변화인 동시에, 나아가 18세기 후반~19세기 초의 연행사 필담의 전개 양상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먼저 신묘통신사와 기해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수록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이어서 이 시기 사행록의 필담 수록 양상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검토 대상 자료는 6종이며, 그중 日錄(日記) 형식으로 구성된 5종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신묘·기해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및 시문창화 수록 현황

1) 신묘통신사: 『동사록』(조태억)·『동사일기』·『동사록』(김현문)

신묘통신사 사행록은 正使 趙泰億(1675~1758)의 『東槎錄』, 副使 任守

幹(1665~1721)의 『東槎日記』, 押物通事 金顯文(1675~1738)의 『東槎錄』까지 모두 세 편이다. 조태억의 사행록은 使行詩集으로, 그의 문집인 『謙齋集』 권6~8에 실려 있다. 여기에는 총 263제 347수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저자가 일본인들에게 써준 贈詩와 次韻詩가 74제 95수에 이른다.⁷⁾ 임수간의 『동사일기』는 乾卷에 〈前後通信使座目〉과 〈辛卯通信使座目〉, 그리고 1711년 5월부터 1712년 2월까지의 일기가 실려 있고, 坤卷에는 〈江關筆談〉, 〈國書〉, 〈聞見錄〉, 〈海外奇聞〉, 〈關白教領客使文〉, 〈新正約條〉, 〈遯窩府君日本使行時驢章【辛卯】〉가 차례대로 실려 있다. 〈문견록〉에는 ‘從事所記’라고 부기되어 있어, 종사관 李邦彥이 작성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김현문의 『동사록』은 임술사행의 『東槎錄』(洪禹載)과 『東槎日錄』(金指南), 계미사행(1763)의 『東槎日記』(吳大齡)과 함께 역관의 사행록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료이다. 『동사록』은 일록과 함께 사행 명단, 국서, 서계, 日本往還摠目(노정), 관백과 대마도주의 연혁, 임진왜란 후 통신사 목록, 그리고 사행의 처벌에 관한 조정의 논의를 수록하고 있다.

신묘통신사 사행록에서 필담 교류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기록은 『동사일기』에 수록된 〈강관필담〉이다. 〈강관필담〉은 조선 측에서 엮은 유일한 통신사 필담록으로, 三使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 사행록에서는 ‘源璵’로 지칭함)의 필담이다. 『坐間筆語』에 부록으로 수록된 일본판 〈강관필담〉에는 편자가 조태억으로 적혀 있으나, 실은 임수간이 편집한 것이다. 조태억의 사행시집에 창화시가 다량으로 수록된 점 역시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현상이다. 1655년 사행록인 南龍翼의 『扶桑錄』에는 55편(남용익의 시 33편과 일본인의 元韻 22편)의 창화시가 실려 있으며, 1682년 정사 尹趾完의 사행시집인 『乘槎錄』에는 저자가 쓴 9수의 증시가

7) 조영심, 「趙泰億의 使行文學 연구 -對日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10~11쪽.

수록된 것이 전부였다. 다음 시기의 사신인 洪致中과 曹命采, 趙巖 등이 자신의 사행록에 일본인들과의 창화시를 거의 수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조태억의 사례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임술사행부터 제술관이 파견되었고, 신묘사행에 이르면 제술관 및 세 명의 서기가 갖추어져서 이들이 일본인들과의 필담창화를 전담하였다. 신묘사행의 제술관 李磻은 초기의 제술관이었던 만큼 일본인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아서, 기해사행의 신유한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거질의 필담창화집인 『鷄林唱和集』이 출간된 것도 이 시기이다. 그러나 이현은 물론 세 명의 서기(洪舜衍, 嚴漢重, 南聖重) 중 누구도 사행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의 필담 교류에 관해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임술사행 이후로 館伴 외의 일반 문사들도 필담 교류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삼사가 일반 문사들과 교류하는 일은 드물었다. 또, 接伴僧 등 관반들과는 주로 시문창화를 했고 필담을 길게 나누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라이 하쿠세키와 같은 특출한 인물의 등장으로 삼사의 필담록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아래 [표1]은 『동사일기』의 일록 부분과 김현문의 『동사록』에 수록된 필담 및 시문창화 관련 기록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⁸⁾ 각 기사에서 필담, 서신 교환, 시문창화와 관련된 기록을 추출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해당 기록의 유형을 표시하였다. 필담의 내용이 일부라도 포함된 것은 ‘필담’으로, 필담 내용 없이 필담을 나누는 상황만을 제시한 것은 ‘필담 상황’으로 표시하였다. 또, 서신을 주고받은 상황만을 말했을 경우 ‘서신’으로, 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록했을 경우 ‘서신(내용)’으로 표시했다. 시문창화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기록은 ‘창화’로 표시하고, 창화시를 같이 수록한 경우에는 내용 설명 뒤에 ‘(시문 수록)’이라고 부기하였다. 또, 필담이라는 말은

8) <강관필담>은 전체가 필담록이므로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조태억의 『동사록』은 사행시집이므로 본 장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없지만 정황상 필담으로 추정되는 대화는 ‘필담(추정)’이라고 표시하였다. 대체로 같은 날의 기록은 한 건으로 처리하였는데, 같은 날이라도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 아니거나 내용상 분리가 가능할 경우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1] 신묘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및 시문창화 관련 기록

일자/장소		내용		유형
東槎日記 (任守幹)				
1	7/26	對馬	島主의 연향에서 장로가 절구 한 수를 마쳐서 三使가 화답해 줌. 雨森東, 松浦儀 등이 詩章을 마쳐 제출관 등이 화답함.	창화
2	7/30	對馬	平方直이 난초를 보내와서 삼사가 시를 써서 사례함.	창화
3	8/7	對馬	도주가 편지를 보내 뜰에서 사자를 맞이하라는 뜻을 말했는데, 내놓고 공감하는 의사가 있어 결코 변경할 수 없다는 뜻으로 화답함.	서신(내용)
4	8/11	壹岐	우삼동, 송포의 등이 각각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제출관, 서기와 함께 시문창화.	창화
5	8/13	壹岐	永集(集長老)이 전일 宴席에서의 운으로 차운하여 보냈기에 화답함.	창화
6	8/19	藍島	우삼동이 筑前 사담 竹田定直, 神屋亨 등을 데리고 와서 제출관 등과 시문창화. 그 시는 말이 되지 않았으나 儒家의 학문 및 明末 諸家の 설을 논한 文 한 편이 불만했다고 함.	창화 필담 상황
7	8/20	藍島	筑前の 승려 鐵相이 시를 보내와서 서기를 시켜 화답하게 함.	창화
8	9/17	大坂	祖緣(緣長老)이 각각 읊시 한 수를 보냈기에 화답하여 보냄.	창화
9	10/27	江戶	大學頭 林信篤과 그의 두 아들 講官 信充과 信智, 翰林 木寅亮, 高玄岱, 平元成이 모두 시를 바침.	창화
10	11/2	江戶	儒官 三宅緝明이 시를 바쳤는데 文才가 불만했음.	창화
11	11/3	江戶	관백의 연향에서 음악을 베풀었는데, 源璜가 곁에 앉아서 악보의 뜻을 적어서 보임. (이하 음악 내용 순서대로 설명)	필담 상황
12	11/5	江戶	원어가 술을 가지고 찾아와서 종일 필담을 하고 감.	필담
13	11/13	江戶	[國書請改始末] 도주에게 편지를 보내 국서를 고쳐야 한다는 뜻을 말함.	서신(내용)
14	11/16	江戶	[國書請改始末] 도주가 두 장로와 함께 와서 執政府에서 관백의 뜻을 받들어 도주에게 내린 글을 보여줌. 삼사가 그렇지 않다는 상황을 써 보이고, 도주의 청에 따라 글을 지어서 사자 관에게 쓰게 함. (삼사의 서신은 11/17 기사에 수록)	서신(내용)

東槎錄 (金顯文)				
15	10/26	江戸	원여가 와서 문후하고 스스로 자신의 지위와 관직을 말함.	필담(추정)
16	11/3	江戸	관백의 연향에서 음악을 베풀었는데, 원여가 곁에 앉아서 악보의 뜻을 적어서 보임 (이하 음악 내용 순서대로 설명) *『동사일록』의 기록과 거의 동일함.	필담 상황
17	11/5	江戸	원여가 술을 가져와서 삼사를 뵈고 종일 필담을 나누다가 밤이 깊은 뒤에 돌아감. 그 문제가 불 만하였음.	필담 상황
18	11/8	江戸	祖緣이 日光山 八景圖를 정사에게 보내고 시를 구함.	창화
19	12/30	福禪寺	절의 승려가 시 한 수 얻기를 원하여 삼사가 각각 써줌.	창화
20	2/24	佐須奈浦	도주가 글로써 삼사에게 문후하고 또 과일을 보내어 삼사가 글로써 사례함.	서신

『동사일기』에서는 14건, 『동사록』에서는 6건의 필담 및 시문창화 관련 기록이 확인된다. 창화시를 같이 수록한 경우는 없으며, 필담 상황과 창화 상황을 제시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임수간은 자신이 참여한 시문창화 외에 제술관과 서기들이 창화한 사실도 밝혔다. 17세기의 사신들과 마찬가지로 임수간도 쓰시마 도주의 연향에서 장로들이 시를 바치며 화답을 청한 것이 첫 번째 시문창화였다. 장로들의 시에는 삼사가 답을 하고,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 등 다른 접대원들의 시에는 제술관이 화답하고 있다. 또, 호행차와 히라타 가즈에(平田主計. 平方直), 太學頭 하야시 호코(林鳳岡(1644~1732. 林信篤), 그리고 아라이 하쿠세키와의 시문창화에 대해 기록하였다. 임수간은 제술관 등이 맞이한 문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그중 다케다 순안(竹田春菴. 이름은 定直), 미야케 간란(三宅觀瀾. 三宅緝明) 등의 文才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 國書의 改修와 관련하여 도주 및 執政과 서신으로 의사를 전달한 일에 대해 적었다. 한편 김현문은 삼사의 필담창화 상황 중에 주요한 일들만을 기록하였다. 역관으로서 주로 삼사를 배행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삼사와 하쿠세키의 필담, 접반승 祖緣이 정사에게 시를 구한 일, 후쿠젠지(福禪寺)의 승려에게 삼사가 시를 증정한 일을 기록했다. 저자 자신은 필담창화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관련 기록이 소략한 편이다.

흥미로운 것은 관백의 연향일에 음악을 관람한 일에 대한 기록이 두 사행록에 동일한 내용으로 실려 있다는 점이다. [표1]의 11번과 16번이 이에 해당한다. 하쿠세키는 관백의 연향에 특별히 古樂, 즉 교토에서 전수되어 온 舞樂 공연을 준비하였다. 두 사행록의 11월 3일은 그날의 기록이다. 처음 관백의 궁에 도착하기까지의 기록은 두 책이 같지 않다. 도착한 후 관반과 도주, 두 승려가 맞이하고 이어서 하쿠세키가 삼사를 뵈러 나왔다. 먼저 삼사가 수역을 시켜 하쿠세키에게 말을 전하고, 여기에 하쿠세키가 답을 한다. 『동사일기』와 『동사록』은 똑같이 이 대화를 수록하고 있는데, 표현은 조금 다르다. 이어서 관백을 접견하고 예를 행한 내용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공연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는데, 여기부터 두 책의 기록이 거의 일치한다. 다음은 첫 번째 악곡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振鉦 3節을 보여주었다. 악기는 笙笛, 觿箏, 腰鼓였는데 그중 笙의 소리가 가장 맑고 고왔다. 붉은색의 綉衣를 입고 鳳翅冠을 쓴 자 6인이 각각 金矛를 잡고 나와서 빠르게 돌며 춤을 추는데, 절주가 화평하여 [들을 만했다]. 세 차례로 나누어 번갈아 나왔는데, 복색이 각각 달랐다. 源璵가 곁에서 [여러] 악보의 뜻을 써서 보여주었다. 이는 천황이 개벽한 공덕을 형용한 음악으로 일명 偃武樂이라고 하는데, 모든 악곡에서 먼저 이 무곡을 연주한다고 한다.⁹⁾

『동사록』에 몇 글자가 더 추가되어 있을 뿐 전체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 하쿠세키가 그 곁에 앉아서 악곡의 뜻을 써주었다고 했는데, 『동사록』

9) 任守幹, 『東槎日記』 및 金顯文, 『東槎錄』, 1711년 11월 3일. 始呈振鉦三節. 樂器則笙笛觿箏腰鼓, 而笙聲最清亮. 着紅綉衣鳳翅冠者六人, 各持金矛以進, 揮霍盤舞, 節奏雍容[可觀]. 分三次遞進, 服色各殊. 源璵在傍, 書示[諸]樂譜之義. 此是開闢天皇形容功德之樂, 一名偃武樂, 凡諸曲必先奏此舞云. * []로 표시한 것은 『동사록』에만 있는 부분. (『동사일기』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 『동사록』 원문은 김현문 지음, 백우경 옮김, 『동사록(東槎錄)』, 혜안, 2007, 309쪽 참조. 번역은 필자)

에는 ‘諸樂譜之義’라고 되어 있어서 이 곡 외에 이어지는 모든 곡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때의 필담이 하쿠세키가 편집한 『坐間筆語』인데, 이본으로 『觀樂筆譚』이 있다. 『동사일록』과 『동사록』은 위 악곡에 이어서 순서대로 각 악곡의 공연 모습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실제로 관람한 춤과 음악의 인상과 그에 대한 비평과 함께 해당 악곡의 의미와 유래 등을 간간히 말하고 있는데, 이 정보들은 하쿠세키와의 필담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악곡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두 책에 실린 11월 3일 전체 기록의 구성도 거의 일치한다. 임수간이 김현문으로 하여금 그날 일을 기록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아니면 후일 김현문의 사행록을 (저자 또는 제3자가) 필사하면서 임수간의 사행록에서 해당 부분을 가져왔을 것이다. 임수간이 자신의 사행록에 종사관의 문건록을 같이 수록한 것, 그리고 1763년 사행의 정사 조엄 역시 일본 문사들에 대한 서술에서 서기 원중거의 기록을 가져온 사례를 볼 때 전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하쿠세키와 필담을 나눈 것은 역관이 아니라 삼사였으며, 표현한 내용 역시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임수간의 글이라고 보는 편이 나올 듯하다.¹⁰⁾ 누구의 기록이었든 간에, 이 시기 사행록에서 일본 문사와의 필담 내용을 일기의 서술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활용 방식은 하쿠세키가 편집한 실제의 필담록인 『좌간필어』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기해통신사: 『해사일록』·『부상기행』·『해유록』

본고에서 검토할 기해통신사 사행록은 『海槎日錄』, 『扶桑紀行』, 『海游錄』의 3종이다.¹¹⁾ 『해사일록』은 정사 洪致中(1667~1732)의 사행록이다.

10) 김현문의 『동사록』은 전반적으로 간결한 기록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날 특별히 사신의 명에 따라 상세한 견문을 기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11) 이 시기 사행록으로 이 3종 외에 軍官 金翁의 『扶桑錄』이 있다. 이 책은 필사본

사행 명단 및 1719년 4월부터 1720년 2월까지의 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문건록은 없고 시문도 수록하지 않았다. 『부상기행』은 자제군관 鄭后僑(1675~1755)의 사행록이다. 上·下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은 사행 명단 등이 없고 바로 일기가 시작되며 하권은 시문이다. 하권에는 저자의 시가 131제 187수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74수가 일본 문인에게 지어 준 작품이다. 또, 일본인이 증정한 시 11수가 수록되어 있다. 정후교는 부사 黃璫의 자제군관으로 수행하였는데, 詩才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행에서 그는 제술관 및 서기들과 함께 일본인들과의 시문창화에 참여했다. 세 번째는 申維翰(1681~1752)의 『해유록』이다.¹²⁾ 『해유록』에는 다양한 인물들과의 필담 기록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시기 사행록을 통틀어 보아도 손꼽히는 분량이다.¹³⁾

[표2]는 위 3종 자료의 일기 부분에 포함된 필담 및 시문창화 관련 기록을 발췌, 정리한 목록이다. [표1]과 마찬가지로 날짜와 장소, 기록의 내용 및 유형을 밝혔다. 『해유록』의 〈聞見雜錄〉 부분에는 필담 기록이 포함되

2권 1책으로 일기, 사행원역 명단, 저자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일기는 4월 19일 출발일부터 9월 20일 예도 도착까지의 기록으로서, 전명의식의 기록 및 회정기 부분이 없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탈 (<http://waks.aks.ac.kr>), '부상록[3]' 항목. 검색일: 2022.3.23) 이 책은 초서로 되어 있어 접근이 힘들어, 일단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日觀要攷』가 있는데, 이것은 신유환의 『해유록』에서 발췌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책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 책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 제외하였다.

- 12) 신유환의 『해유록』은 역대 사행록 가운데 가장 널리 읽혔으며 후대에 끼친 영향 역시 가장 크다. 이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형식과 내용, 또 일본 인식에 있어서 통신사 사행록의 한 전기를 마련한 저작이다. 널리 알려진 저작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13) 가장 풍부하게 필담을 수록하고 있는 자료는 1763년 사행록인 元重擧의 『乘槎錄』이다. 『승사록』에서 다량의 필담을 수록한 것은 『해유록』의 서술방식을 계승한 측면이 있다. 장진엽, 『원중거의 『승사록』 소재 필담 검토 -서술 의도와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79, 한국한문학회, 2020 참조.

어 있으나 [표2]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다.¹⁴⁾

[표2] 기해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및 시문창화 관련 기록

일자	장소	내용	유형	
海槎日錄(洪致中)				
1	5/3	부산	護行大差倭가 물건과 함께 편지를 보냄.	서신(내용)
2	5/5	부산	호행차왜가 또 물건과 함께 편지를 보냄.	서신(내용)
3	7/3	對馬	島主의 연향에서 奉行이 太守의 말이라고 하며 시 짓기를 청함. 모두 능하지 못하다며 사양함. 長老가 즉석에서 읊시 한 수를 지어서 보였으나 역시 사양함.	창화
4	7/20	壹岐	以醇菴 장로가 읊시 한 수를 보냈는데 차운할 수 없다는 뜻으로 답함.	창화
5	7/25	壹岐	쓰시마 도주와 장로가 문안하러 옴. 도주가 작은 종이를 꺼내주었음. 江戸의 執政에게 보고할 것을 말로 하게 되면 너무 길어 지므로 대략 문자를 갖추어 가져왔다고 함. 수역이 가져와서 보여주었는데 문자의 태반이 왜의 글자여서 이해할 수 없어서 조선말로 번역하게 하여 읽어 봄.	서신(내용)
6	8/7	藍島	雨森東, 松浦儀, 筑前守와 詩倭 몇 명이 날마다 제술관 및 서기를 찾아와 창화하였고, 以醇菴 장로의 제자들도 시를 지어 보내며 화답을 요구함. 종이를 가져와서 글을 써주기를 애걸하는 자들이 날마다 몰려들어 제술관 등이 응대하느라 쉴 틈이 없었음.	창화
7	9/29	江戸	林信篤이 그 아들 信充과 信智를 데리고 방문함. 세 사람이 각각 시축을 꺼내서 바쳤는데 불만한 것이 없었음. 술과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사신의 일을 마치기 전이라 시를 읊는 일은 도리에 편치 못하니 마치고 돌아갈 때 화답해 주겠다고 함.	창화
8	10/2	江戸	林信篤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접견을 청했는데, 저자와 종사관은 몸이 아파서 못 나가고 부사만 나가서 맞이함. 그는 관백이 사신을 칭찬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과시하고자 온 것이라고 함.	필담 상황
9	10/5	江戸	유생 열 명이 제술관의 숙소에 모여 창화하다 갔는데, 모두 林信篤의 제자라고 함. (林信篤과 新井白石 비교)	창화
10	10/11	江戸	도주가 奉行을 시켜 집정이 보낸 편지를 전해 줌. (예물을 돌려준다는 내용)	서신(내용)
11	10/12 ~14	江戸	회답서계와 회례물품 등에 관한 일로 집정과 편지를 주고받음	서신(내용)

14) <문건잡록> 수록 필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扶桑紀行 (鄭后僑)				
12	9/1	牛窓	밤에 우삼동과 송포의가 세 명의 士人을 데리고 읍. 시를 꺼내보이며 화답을 구하기에 화답해 줌. 76세의 문사 省齋가 자신의 늙음을 슬퍼하였음.	창화 필담
13	9/10	大坂	4일부터 10일까지 大坂에 머무름. 蘭溪, 南溟, 龍洲라는 이들이 만나러 와서 종일 창화함. 南溟의 종제인 12세 동자가 시를 잘 지었음. 唐金興隆이 시를 보내 화답을 구하였는데 그 시가 꽤 격조가 있었음. 屏山과 그 아들 13세 동자가 밤늦도록 창화하고 갔음. 문사 서넛, 또는 대여섯이 짝을 지어 날마다 방문함.	창화
14	9/29, 30	江戶	江戶의 十學士가 찾아와서 제술관과 서기 등 문사들이 그들을 맞아 필담창화를 함. 여러 차례 시문이 오가며 양쪽 다 물리칠 뜻이 없었는데, 조선 문사들이 의논하여 어려운 운을 내어서 한 수 써보이니 그들이 머뭇거림. 날이 저물어서 파함. 다음날 林信篤이 두 아들 信充과 信智를 데리고 와서 만나기를 청하였는데, 어제의 십학사 중에 있던 사람이었음. 더불어 창화함.	창화 필담 상황
15	.	江戶	江戶에 여러 날 머무름. 二水, 池庵, 有隣, 桂軒, 鷺洲, 東溪, 龍岩, 東리가 만나기를 청함. 각자 시를 가져와서 화답을 구함. 17세 河口倬라는 이가 시를 가져왔는데, 재주가 뛰어났음. 또 하루는 廣陵武敬, 天野景胤, 芝山孝先, 天水, 雨森明卿, 秋以正, 井上有基가 와서 수창을 하고 필담도 나눔. 박식하고 문에 가 너덕한 선비가 반수는 됨. 그 외에도 날마다 오는 자가 매우 많았는데, 간혹 아이들도 있었으며 모두 재주가 아꼈 만했음.	창화 필담 상황
16	11/1	淀浦	우삼동과 문장의 高下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저자가 우삼동에게 일본의 제술이 어느 때 시작되었는지 물음. 또, 일본이 조선의 풍속을 사모하는지 물음.	필담?
17	11/15 ~18	室津 牛窓 鞆浦	저녁에 송포의 등 문사 몇 명이 찾아와서 수창함. 琉球國, 蝦蟇國, 八丈國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	창화 필담
18	11/21 ~ 12/2	(船上)	東溪가 보낸 시 두 편에 차운함. 우삼동과 송포의가 만나러 읍. 粟屋文蘭의 <題花鳥圖> 시를 보여주어 그 자리에서 오연고시 한 수를 지어서 줌.	창화
19	12/26	對馬	湛長老가 초청하여 여러 문사가 밤에 찾아감. 우삼동, 桃浪, 松瑟도 그 자리에 있었음. 밤늦게까지 시를 짓고 이별의 뜻을 나눔. 우삼동이 네 수 정도 읊더니 눈물을 흘림.	창화
海游錄 (申維翰)				
20	7/1	對馬	性湛(湛長老)이 시를 보내 화답을 구하였고, 그 제자 몇 명이 각각 시를 바쳐서 모두 화답해 줌.	창화
21	7/3	對馬	도주의 연향에서 筆硯을 갖다 놓고 사신에게 시를 청함. 사신이 사양하자 장로가 시 한 편을 쓰며 화답을 청하고, 사신이 또 사양하자 그만둠. 제술관에게는 청하지 않음.	창화

22			性濼의 시가 연이어 왔으나 볼 만한 것은 없고, 다만 긴 편지로 佛理를 서술한 것이 자못 지식이 있어서 저자와 더불어 주고받은 것이 매우 많았음. 그의 문도 禪儀, 周鏡, 周遠이 자주 시를 보냈는데 모두 가소로움. 우삼동이 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칭찬해 주고 모두 차운해 줌.	창화
23	7/19	壹岐	우삼동과 송포의가 관소로 찾아옴. 우삼동의 통역으로 송포의(霞沼)와 인사를 나누고 죽석에서 시를 주고받으며 필담을 함. 新井白石, 조선 술, 거문고에 대한 문답. 저자가 악공을 불러 거문고 연주를 들려줌. 송포의는 才士의 기상이 있었음.	창화 필담
24			저자는 지질 때문에 늘 배 안에 누워 있었는데 性濼이 날마다 사람을 보내 문병하므로, 때때로 억지로 筆語를 지어서 후의에 사례함.	필담 상황
25	8/3	藍島	우삼동이 筑前の 記室인 琴山과 梅峯을 데리고 와서 시문을 주고 받고 필담을 함. 시는 모두 좋아했으나 琴山은 꽤 식견이 있어서 저자와 필담으로 고급의 문장과 疑問 몇 조목을 말하였는데 껍기이한 말이 있었음. 醫官 少野玄林이 공무로 왔다가 필담 자리에는 끼지 못하고 시문을 보내었기에 화답해 줌. 밤에 우연히 玄林을 만나 통역을 통해 인사 나눔.	필담 상황 창화
26			性濼이 禪儀와 周鏡을 보내 문안하여, 이들과 시를 짓고 필담.	창화 필담
27			어느 날 사관에서 지체 높아 보이는 동자를 만나서 일본어로 성명과 나이를 묻고, 종이에 답을 쓰게 함. 저자가 절구 두 수를 지어 주니 그 사람이 품에 소중히 안고 갔음. 나이 어린 筑前太守가 아니었을까 추측함.(시문 수록)	창화 필담
28	8/15	(船上)	사신이 시를 지어 저자와 서기에게 화답하게 하고, 우삼동과 송포의도 시를 지어 보내어 번갈아 주고받으며 시통이 오가니 흥취를 돋을 만하였음.	창화
29	8/18	赤間關	5일간 머물면서 여러 문인들과 창화하였으나 말할 만한 것이 못됨. 小窓貞(省齋)과 한참 필담하면서 여러 편의 시를 주고받음. 자신은 林太學의 문도이며 長門州 태수 吉元이 선비를 장려하고 학문을 숭상하여 五聖廟를 세우고 자신을 教授로 삼아 詩書의 교육을 맡겼다고 함.	창화 필담
30			草場中章이 수백 자의 편지를 써서 자신의 시문에 대한 비평을 구함. 시어가 궁벽하여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삼동과 이에 관해 대화를 나눔. 저자가 小紙에 ‘글이 아득하여 所從來를 모르겠으며, 문장에 본디 夷夏의 구별이 없어 친하가 六經諸子의 글을 읽어야 함을 안다’는 내용으로 화답함.	서신(내용)
31	8/25	上關	우삼동과 송포의가 周防의 詞客과 함께 와서 창화함.	창화
32	8/27	鎌刈	태수가 儒官 味木虎(立軒)를 보내 저자를 만나 文事를 이야기하게 함. 사람됨이 安靜하고 古氣가 있었음. 味木虎가 자신의 현재 처지와 뜻을 말함. 그 말이 들을 만하고 시도 平順하여 뜻을 잘 표현하였음. 저자의 이름 및 벼루에 관한 농담.	창화 필담

33	9/1	牛窓	우삼동 등이 備前州의 여러 문사들을 데리고 와서 장편·단율을 지으며 수창함. 松井河樂은 나이 80여 세에 시를 잘 짓고 문기를 좋아하여 오래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았음. 자신의 시고에 서문을 칭함. 和田省齋도 박식하고 勤學하였음. 각자 평소의 뜻을 써 보임. 밤이 깊어서 헤어짐.	창화 필담
34			다음 날 아침 여러 사람이 다시 와서 몇 장의 종이로 필담을 하며 조선의 과거제도와 저자가 응시한 시험 및 시제, 좌주의 성명 등을 물어서 답해 줌.	필담
35	9/2	室津	攝津의 여러 문인들이 각자 長書·短律을 우삼동에게 부탁하여 전달함.	창화
36	9/3	兵庫	우삼동 등이 청하여 관소에서 여러 선비들과 필담을 나눔. 좌중에서 저자의 시를 읊었는데 그 소리가 기괴하였음. 저자의 시가 白雪樓諸家에 합한다는 말을 써서 보이기에 한 번 웃음.	창화 필담 상황
37	9/4	大坂	여기 머무는 5일 동안 晝生 십여 명과 밤늦게까지 시문창화를 하였는데, 지은 시가 치졸하여 읽을 만하지 않았음. 江若水와 池南溟의 시는 약간 운치가 있었음.	창화
38			14세 동자 水足安方이 그 부친 屏山과 함께 와서 재주를 보임. 저자가 신동이라 칭하자 屏山이 기뻐하며 아이의 字號를 지어 주길 청하여, 저자가 지어 주고 자호설을 써줌. 단아한 동자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南溟의 15세 된 從弟의 재주도 볼 만하였음. 하나하나 시를 지어주고 격려하니 사람들이 저자를 명나라 사신 張寧에 빗대어 칭송함.	창화 필담
39			泉南縣의 文學 三宅緝明(滄溟)이 먼저 수백 자 편지를 보냈는데 필력이 활발하여 오랑캐 중의 거벽이었음. 그가 와서 인사하고 이전 사행의 창수집인 『萍水集』을 가져와서 서문을 칭함. 저자와 成夢良이 각각 서와 발을 써줌. 滄溟이라는 호에 대해 농담. 그의 아우 茂忠도 편지를 보냄.	창화 필담
40			접반 장로가 읍시 및 절구 여러 편을 지어 화답을 구하였는데, 그 시가 性湛과 비슷하였음. 모두 화답해 줌.	창화
41	9/9	大坂	性湛이 禪儀를 보내 문안하고 국화와 술을 보내줌. 臥雲長老가 다시 시를 보내 화답을 칭함. 답시를 지어주고 禪儀와 불교에 관한 필담을 함. 禪儀에게 性湛이 국화와 술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함.	창화 필담
42			한 객이 烏山氏가 지은 『芝軒吟稿』를 바치기에 읽어 보니 모두 精峭하고 운치가 있었음. 편지로 객에게 사례하고 서문을 지어 주기로 약속함.	서신
43	9/12	大津	支持官 青山因幡守가 중 하나를 보내 편지를 전하였음. 중의 이름은 貞侃인데, 조금 글을 알아서 禪語를 하였음. 그가 저자의 글씨를 얻어 가서 主官에게 생색을 내고자 하여 절구 두 수를 써줌.	서신 창화

44	9/14	佐和山	밤에 여러 문사들과 시문수창을 함. 素盈(璘溪)이라는 중과 필담을 하였는데, 꽤 재주 있고 시도 잘 썼음. 北尾春輪은 醫官 春圃의 아들이어서 지은 시가 많았음. 저자가 近江州에 강산의 정기를 타고 난 뛰어난 인물이 있으리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렇다고 함. 밤늦게까지 창화함.	창화 필담
45	9/15	大垣	春圃의 아들 春竹, 春倫, 道仙, 春乙, 春達 6부자가 함께 와서 시를 지음. 또 다른 서생들이 자리에 가득했음. 한밤중이 지나 헤어짐.	창화
46	9/16	名護屋	시를 칭하는 왜인들이 담장처럼 둘러서 있었음. 본주의 기실 木實 聞(蘭草)과 朝文淵(玄洲)은 중국말을 해득했고 시도 간간이 볼만했음. 저자와 친밀히 사귀어 밤까지 여러 편을 화답함.	창화
47	9/17	名護屋	이른 새벽에 玄洲가 다시 와서 이별시를 지어주기를 청하여, 돌아오는 길에 마땅히 못다한 즐거움을 잇기로 약속함. 江戸의 글 아는 사람들의 성명을 써와서 나에게 안부를 전할 것을 부탁함.	필담 상황
48	9/19	濱松	밤에 승려 및 문사 몇 명과 수응하였는데, 인물과 글이 모두 말할 것이 못 되었음.	창화
49	9/24	箱根嶺	길에서 性湛을 만나서 기뻐서 가마에서 나왔는데 통사가 없어 말이 통하지 않아 각자 손바닥에 그어서 은근한 뜻을 표시함.	필담 상황
50		小田原	고개에서 性湛을 만난 일을 禪偈 七言三絶句로 지어서 性湛의 숙소로 보내자 性湛이 禪儀이 보내 사의를 표함.	창화
51	9/25	大磯	태수의 隸臣 竝河尙義가 조선의 田制, 세법, 풍속을 물음. 태수의 뜻을 대신 전한 것으로 보였음. 사신에게 여쭙고 써줌.	필담
52	9/28	江戸	大學頭 林信篤이 그 아들 信充과 信智를 데리고 와서 만나보기를 청하므로 저자와 세 서기가 儒衣와 儒冠을 갖추고 만나서 서로 읊하고 필담을 나눔. 信篤이 자신의 내력을 말함. 신묘년 세술관 李璣의 안부.	필담
53			이튿날 삼부자가 다시 와서 시를 지어 저자와 세 서기에게 주고, 사신을 만나보기를 청함. 정사 부사가 만나보고 약간 대화를 함. 세 사람이 시를 바치고 화답을 청하여, 돌아갈 때 화답해 주겠다고 함.	창화
54	10/2	江戸	저자와 세 서기가 林信篤 삼부자의 시에 차운하여 사례함. 이날 이들이 다시 와서 이야기하고 사신을 뵈기를 청하여 부사가 만나 봄. 그들이 부사에게 관백이 어제 예식 후 조선의 예의를 칭찬했다는 말을 전함.	창화 필담
55	10/3	江戸	儒官 10여 명이 찾아와서 저자와 세 서기가 접대함. 각각 읊시와 절구를 써 주며 화답을 청하여 모두 화답해 줌. 계속해서 차례로 시를 부르고 장편도 써내어 각체가 쌓여서, 이를 모두 수응하느라 초를 잡거나 수정할 겨를도 없었음. 다음날 또 수십 명이 와서 밤늦게까지 창화함. (여러 인물의 성명 나열) 野鷲洲와 桂鶴汀이 용모가 준수하고 시도 약간 나왔는데, 저자와 필담으로 꽤 마음을 쏟아냄. 岡島璞은 朝文淵이 언급한 인물이라 이에 대해 말하니 그가 감격함. 源方敬은 시를 빨리 지었으나 볼만하지는 않았고 談論한 것이 범상치 않았음.	창화 필담 상황

56			연일 관소에 있었더니 시인들이 계속 찾아와서 창화와 필담을 하느라 쉴 틈이 없었음. 또, 우삼동과 두 장로를 통해 서문이나 畫題, 畫像贊 등을 구하여 이에 응하느라 바빴음. 林信智가 가져온 그림에 시를 써줌.(시문 수록) 太醫令 林良意와 그의 아들 重熙가 문학을 좋아하여 종일 곁에서 지켜보았으므로 그 시에 화답해 줌. 판반 牧野駿河守 源忠辰은 글을 몰랐으나 글을 좋아하여 종일 구경함. 그가 통역을 통해 말을 전하기에 저자가 사례하는 말을 써줌. 이튿날 그가 글을 써서 보냄.	창화 필담 상황
57	10/8	江戸	林良意 부자가 또 와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한참 필담을 나눈 후 각각 지어준 두 절구를 받아감.	창화 필담
58	10/9	江戸	河口嶼(鳳嶼)가 우삼동의 소개로 찾아왔는데, 온화하고 총명하며 배우기를 좋아하여 저자가 격려해 주고 그의 시를 수정해 주니 그가 감사하고 밤낮으로 찾아와 문안하고 소회를 써보임.	창화 필담
59	10/15	江戸	林信篤에게 편지를 보내 작별을 하고 두 편의 읍시를 지어 그의 두 아들에게 줌.	서신 창화
60	10/16	藤澤	林信篤이 사례하는 편지를 보냄.	서신
61	10/17	小田原	어떤 사람이 小紙를 주었는데, 잘 돌아가라는 인사였음.	필담
62	10/18	箱根嶺	龍菖(菖長老)이 저자가 전일에 지은 <箱根山> 세 절구에 차운하여 담장로에게 부쳐 전하였기에 시를 지어 사례함.	창화
63	10/22	濱松	江戸를 떠난 이후 각 참에서 시를 요청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기록할 만하지 않음. 여기 도착한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에 응하느라 밤을 새움.	창화
64			木蘭阜와 朝玄洲가 나와서 환영하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음. 전일에 지어준 시를 채색장자로 만들어 낙관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시고에 시명을 청하기도 함. 계속해서 종이가 쌓여서 쉴 새 없이 차운하였음. 쓰기만 하면 사람들이 가져가서 몇 편이나 썼는지 알 수 없음.	창화
65	10/25	名護屋	玄洲가 그의 글씨를 내보였는데 大篆과 小篆이 자못 기이하였음. 蘭阜가 그의 시고를 보여서 서문을 써줌. 여러 왜인이 조선 諺文의 자형을 궁금해하여 써서 보여줌. 어느 시대에 창제했는지 물어서 답해주니, 왜인들이 보고서 河圖洛書에서 취한 것 같다고 함. 한 貴人이 찾아옴. 玄洲가 그는 부중의 귀공자인데 학사가 글 짓는 것을 보러 온 것이라고 쪽지에 써서 알려줌.	창화 필담
66	10/26	大垣	春倫의 6부자가 다시 나와서 영접함. 그 외 시를 청하는 자가 名護屋과 같이 많았음.	창화
67	10/27	佐和山	이름을 얻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이 시를 보냈는데, 글이 비루하여 응답할 겨를이 못 되었으나 자신은 이미 文事を 담당하고 있어서 물리치지 못하고 밤새 써줌.	창화

68	11/1	倭京	국법 때문에 사관을 찾아와 글을 청하는 자가 드물었음. 조금 늦게 서생 수십 명과 대화를 나누었음. 나이 18세인 明石鳳凰과 약간의 시를 주고받음.	창화
69	11/3	大佛寺	두 장로가 읍하고 행랑으로 가서 잠시 앉아 이야기 나눔. 周恬은 담장로의 高弟였는데, 저자에게 근일 스승을 통해 그의 글을 보니 불교의 이치에 통하였으니 벼슬살이 중에 어떤 공부를 하였는지 물어서 저자가 답해줌. 그가 스승의 화상잔을 지어줄 것을 청하여 쓰시마에 도착하면 지어주기로 약속함.	필담
70	11/4	大坂	5일 동안 南溟, 若水, 三宅緝明 형제와 아침저녁으로 모여 각체의 시문을 주고받으며 바쁘게 화담함. 南溟의 이별시에 차운하고, 若水の 시고에 서문을 써줌. 그 외 원근에서 글을 청하는 자가 일시에 몰려서 설 새 없이 수응함.	창화
71			鳥山碩輔가 저술한 『芝軒集』이 매우 뛰어나고, 그 제자의 칭이 간곡하기에 江戸에 있을 때 그 문집에 서문을 써주었는데 여기에 이르러 그 서문이 이미 각판되었고 그 제자들이 편지를 보내 사례하고 기념시를 보냄.	서신(내용) 창화
72			이곳의 문사 한 사람이 조선의 문묘에 종사된 여러 선현을 정확히 쓰고 牧隱, 估畢齋 등 옛 문인의 사적을 자세히 알았음. 저자가 궤이하게 여기고 일본의 고사에 대해 물어보니 잘 알지 못했음.	필담
73			임술년의 창화집을 봄. 왜인에게 신묘년 창화시문이 출간되었는지 물으니, 그때의 시가 많지만 수습하여 책으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답함. 담장로가 새로 출판된 『星槎答響』을 보여줌.	필담
74			쓰시마에서 우삼동이 唐金興隆이 그의 垂裕堂에 대한 시와 기문을 구한다고 하여 저자가 지어주었는데, 大坂에 도착했을 때 그가 편지로 사례하였고, 지금 다시 大坂에 오니 절구 두 편을 보내 작별함(시문 수록). 또 私稿 한 권을 우삼동을 통해 보내며 비평을 받고자 함. 저자가 三宅緝明에게 唐金興隆에 대해 물으니 비방하는 말을 함.	창화 필담
75		菫長老와 大坂부터 江戸 사이를 함께 오가며 주고받은 시가 많았는데, 조용히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음을 아쉬워하여 이별에 가까워 지주 사람을 보내 문안하고, 臥雲山四景詩를 지어달라고 함.	창화	
76	11/11	河口	大坂과 江戸에서 우삼동에게 부탁하여 전달한 시와 편지가 눈앞에 가득하였음.	창화
77	11/17	牛窓	바닷가에서 배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일 창화했던 和田省齋였음. 저자가 작은 배를 저어 다가가서 그와 필담을 하고, 얼마 후 작별하며 河樂의 시 서문을 맡기며 전해 달라고 함.	필담 상황
78	11/22	浦崎	味木虎가 만나기를 청하여 서기들과 밤에 가서 만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이별시를 주고받음. 그가 태수의 청으로 병풍 글씨를 써달라고 하므로 권면의 문구를 만들어 성몽량에게 부탁해 써줌.	필담 상황 창화

79			담장로가 지주 사람을 보내 문안하여, 동자와 통역을 데리고 그의 숙소를 방문함. 통역을 통해 대화하고, 그가 자신의 회상을 보여줌. 그곳에 可竹軒의 풍경이 그려져 있어 저자가 자신도 대나무를 좋아한다고 함. 담장로가 찬을 부탁하여, 나중에 써주기로 하고 우선 율시 한 수를 써줌.(시문 수록)	필담/구어 창화
80	11/29	上關	본주의 서생과 한두 마디 나눔. 粟屋氏 여자아이가 大字를 쓸 줄 알아서 小序를 써서 돌려 줌.	창화
81	12/8	赤間關	관소에서 教授 小倉貞과 필담과 창화를 함. 여러 선비들이 시를 써서 화답을 구하였으나, 기운이 다해 좋은 글귀를 쓰지 못함. 小倉이 태수의 뜻으로 子路의 화상찬을 부탁하기에 小記를 지어서 화폭 안에 써줌.	필담 상황 창화 상황
82	12/12	藍島	우삼동이 琴山과 梅峯을 데리고 와서 필담을 함. 小詩를 지어 이별하고 小野玄林의 안부를 묻음.	필담 창화
83	12/13	風本浦	세 서기, 우삼동 및 쓰시마 통역과 함께 담장로의 숙소를 방문함. 당송의 시인과 학자, 조선의 사찰과 불교의 종파, 불서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대화 나눔.	필담/구어
84			담장로가 以町庵에서 만나기를 청하여 세 서기와 함께 감.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저자가 담장로의 화상찬을 화폭 안에 직접 쓰고 秋篋詞를 기록하여 전일의 간청에 답함. 이야기를 나누고 이경 짝에 헤어짐. 다음날 장로가 문도를 보내 사례함.	필담 상황 창화
85	12/26	對馬	시와 문을 청하는 왜인들이 그치지 않아서, 수천 리 밖의 사람들까지 모두 쓰시마를 통해 부탁하여 우삼동도 소개하느라 피로해함. 매일 청하는 편지가 있어 부득이 수용함.	창화
86			송포의가 어제 江戶에서 먼저 돌아와서 이날에 만남.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슬퍼함.	필담
87	12/28	對馬	우삼동과 필담하던 중 저자가 우연히 한 연구를 썼는데, 그가 읽면서 신세 한탄을 함.	필담
88	1/2	西泊浦	글을 청하며 따라온 왜인이 많아서 억지로 들어줌.	창화

먼저 홍치중의 『해사일록』에 서신 교환과 관련된 기록이 5건 포함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2건은 호행대차왜가 물건과 함께 편지를 보낸 것인데, 편지의 내용을 같이 수록하였다. 또, 쓰시마 도주가 집정에게 전할 말을 글로 써온 일을 기록하였다. 도주는 보통 역관을 통해 뜻을 전하는데, 말로 하면 너무 장황하게 되어 문자를 갖추어 가져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한문이 아니어서 소통이 되지 않았고, 결국 수역이 조선말로 번역해서

그 뜻을 통해 주었다. 필담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례이다. 또, 회답 서계 및 예물 수수에 관한 문제로 삼사가 집정과 직접 서신을 교환한 일도 기록되어 있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보통 역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사안이 복잡하거나 國體와 관련된 일일 경우에는 삼사가 직접 필담이나 서신을 이용해 담당 관원과 의사를 교환했다. 17세기 사행록에도 그런 일들이 간간히 기록되어 있으며, 정사의 기록인 『해사일록』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과 일본 간의 필담창화는 대체로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삼사의 사행록을 통해 외교 절차의 조정에 있어서도 필담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치중의 사행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시문창화 기록 또한 쓰시마 도주의 연향에서의 일이다. 그런데 사신이 시문창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전 시기와 다르다. 도주의 연향에서 두 장로가 시를 지어 화답을 구하는 일은 ‘통신사’라는 명칭으로 사절을 파견한 1636년 병자사행부터 있어 온 관례였다. 각 시기 사행록을 통해 병자사행(4차)부터 신묘사행(8차)까지 삼사가 모두 연향에서 화답시를 지어주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기해사행 때는 시에 능하지 못하다는 말로 사양했다. 이로부터 이후 사절의 삼사는 도주의 연향에서 차운하기를 사양했다. 1748년 무진통신사는 “사명을 마치지 못하였고, 또 뜻밖의 화재를 당하여 비야흐로 대죄하는 중인데, 어찌 감히 한가하게 읊겠습니까? 조정의 처분을 기다려서 만약에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라면, 혹 억지로라도 지을 수 있으리다.”¹⁵⁾라는 말로 창화 요구를 물리쳤다. 1763년 계미사행의 정사 趙職의 기록에는 “차를 물리자 붓과 벼루를 올려 시를 지어달라고 청하였으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양하였다.”¹⁶⁾고 간단히 나와 있다.

15)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 1748년 3월 11일. “使事未竣, 且遭意外火災, 方在待罪中, 何敢爲閑漫吟咏. 待朝廷處分, 若無事竣還, 或可強拙矣.” (원문 및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참조)

홍치중의 기록을 보면 7월 20일에도 이테이안(以酩菴) 장로의 화답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조명채와 조엄 역시 연향 전후로 장로의 화답 요청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거절하였다. 대신 제술관과 서기가 장로의 시에 화답하였다. 제술관이 파견된 것은 임술사행부터였지만, 그래도 신묘사행까지는 삼사가 활발히 시문 교류를 했다. 그러나 기해사행 시기의 삼사는 시문창화에 관여하지 않고자 했고, 그것이 후대의 관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동안 사인의 시문창화는 점점 증대하였고, 바로 앞 시기인 신묘사행의 정사 조태억은 자신의 사행시집에 다량의 창화시를 수록하였는데 이 점이 기해사행을 계기로 일변한 것이다. 물론 사인들이 전혀 시를 지어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전례에 따라 시를 지어준다는 방식이 확립된 것이다. 조엄의 경우 자신의 사행록에 〈酬唱錄〉을 두었는데, 혼자 지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행원들과 주고 받은 작품들만 수록하였다. 시를 지을 여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과의 시문창화는 제술관과 서기들이 전담하는 방식이 정착한 것이다.

정후교는 필담 교류에 참여했던 인물인데, 일기에서 각 지역에서의 필담창화 사실에 대해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하권 시집에 창화시를 수록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날그날의 만남을 기록하기보다는 그 지역에서의 필담창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서술하고, 기억에 남는 인물 몇몇을 거론하는 방식이다. 특히 많은 문사들이 찾아왔던 오사카와 에도에서의 필담 교류에 대해 언급했다. 아메노모리 호슈와의 대화도 있는데, 구어인지 필담인지는 확실치 않다. 한편 ‘從倭’와 ‘倭人’에게 들었다고 하며 일본의 구전 이야기에 대해 길게 소개한 기사가 2건 있다. 하나는 주군을 위해 원수를 갚은 사무라이들의 이야기(9월 25일)이고, 또 하나는 부모의 원수를 갚은 三郎라는 아이의 이야기(10월 15일)다. 이 대화는 필담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16) 趙曦, 『海槎日記』, 1763년 11월 6일. 茶罷, 進筆硯請詩, 而以使事未竣辭焉.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 참조. 번역은 필자)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표2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해외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기사([표2]의 17번)는 필담일 가능성이 높다. “이날 저녁 가쇼와 문사 몇 명이 방문하여 등불 아래서 수창했다. 밤이 깊었을 때 바다의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라고 한 후, 琉球國, 蝦蟇國, 八丈國에 대한 일본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문사들과의 수창 중에 나온 이야기이므로 아마도 필담일 것이다. 이외에도 『부상기행』에는 十學士와의 창화 장면 등 흥미로운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임수간의 『동사일기』가 독립된 필담록을 수록한 최초의 (유일한) 사행록이라면, 신유한의 『해유록』은 日錄에 필담 관련 기록을 본격적으로 포함시킨 사행록으로는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2]에서 제시한 필담 기록은 모두 69건이다. 이는 구어 소통으로 짐작되는 아메노모리 호슈와의 대화는 제외한 분량이다. 『부상기행』의 몇 건 기록 역시 필담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웠는데, 『해유록』은 더 사정이 복잡하다. 호슈와의 대화가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유한과 호슈의 대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조선말로 대화하는 것이다. 신유한은 마쓰우라 가쇼(松浦霞沼)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야 만나게 되었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그런데 “그가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우삼동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자” 가쇼가 그제야 알아듣고 놀라서 사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시문창화를 하고 필담을 나눈다.(7월 19일) 이는 신유한이 평소에 우삼동과 조선말로 대화했음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간혹 호슈와의 대화에서도 ‘필담’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말했다[曰]’고 되어 있을 경우 구어로 나눈 대화인지 필담인지가 불분명하다. 두 번째는 통역을 통해 일본어로 소통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필담이다. 호슈와의 대화는 상황에 따라 이 세 가지 방식이 복합적으로 이용되었다.

[표2]에서 <문견잡록> 수록 기사를 제외한 것은 <문견잡록> 소재 대화 기록이 대부분 호슈와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구어 소통과 필담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유한은 문건록의 제작을 위해 일부러 그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을 것이므로 이 경우 구어보다는 필담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보 전달과 기록에는 필담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문견잡록>에는 “내가 우삼동과 필담을 할 때 물었다.[余與雨森東筆談時間]”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어지는 내용은 바다 가운데 있는 ‘異人異物’에 대한 이야기다. 그 뒤로 몇 차례의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데 ‘又問’, ‘問’, ‘曰’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비록 별도 항목으로 표시했으나 비슷한 대화가 연달아 제시된 것으로 보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뒷부분 역시 필담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문사들과의 수창 자리에 대개 호슈가 동석하였으므로, 이때 이루어진 대화 역시 필담이다. [표2]의 기사들 중 호슈 및 여러 문사들과 시문창화를 하고 필담을 나눴다는 내용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런 자리에서 호슈와 신유한은 필담으로 대화했을 것이다. <문견잡록>에 있는 대화들이나 일록에 포함된 몇몇 대화들도 실은 다른 여러 문사들과의 회합 중에 이루어진 필담일 가능성이 있다.

<문견잡록>에는 호슈 외의 다른 일본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몇 건 수록되어 있다. 그중의 어떤 것은 필담임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내가 江戶에 있을 때 한 왜인이 필담으로 물었다.[余在江戶時, 有一倭人作筆語問之曰]”로 시작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호랑이와 표범을 사냥하는 일에 대해 문답하였고, 바로 이어지는 항목에서 “倭人又問”이라고 하며 인삼에 관한 문답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필담일 것이다. 신유한은 어떤 인물과 ‘필담’을 했다는 것을 명시하곤 했으므로 그런 말이 없는 경우는 구어 소통일 가능성이 높다. 호슈는 조선말에 능숙했고, 가끔 대화를 나눴던 일본인 통사들도 조선말을 구사했다. 신유한도 일본인에게 일본어로 말을 건네기도 했다. 간단한 회화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냥 ‘曰’이나 ‘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필담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필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경우도 분명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

다. <문견잡록>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필담 중에 한 말이라는 표현은 한 번씩만 나오고 그 뒤로는 별다른 설명 없이 ‘問’, ‘曰’ 등으로 쓰고 있다.

또한 <문견잡록>에는 일본 정보 외에 일본인들과의 필담창화 및 서신 교환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문인의 증시와 그들이 보낸 서신의 내용, 필담 자리에서 나는 이야기 등 일록 부분에서 포괄하지 못한 구체적 교류 내용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3]은 <문견잡록>에 수록된 대화와 서신 및 시문창화 관련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대화 가운데 구어소통인지 필담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유형’란에 ‘필담(?)’이라고 표시하였다. 도로나 船上에서 주고받은 짤막한 대화들은 대체로 구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필담임을 명시하였거나 필담임이 거의 분명한 대화는 ‘필담’으로, 맥락상 필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필담(추정)’으로 표시하였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문답 내용도 자세한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표3] 『海游錄』 <(附)聞見雜錄> 수록 필담(추정) 기록

	관련 인물	내용	유형
1	雨森東	일본의 지리에 관한 문답(陸奥州와 蝦蛄島).	필담(?)
2		해외의 異國과 異人 * [余與雨森東筆談時間]	필담
3	雨森東 ¹⁷⁾	女人國에 대한 문답(八丈島)	필담
4		서불이 일본에 가져왔다는 고전적에 관한 문답	필담
5	雨森東	감자의 종자에 관한 문답	필담(?)
6	倭人	호랑이와 표범의 사냥에 관한 문답 * [余在江戶時, 有一倭人, 作筆語問之曰]	필담
7		인삼의 맛과 성분에 관한 대화 * [倭人又問]	필담
8	倭人	일본에서 그릇에 옷칠하는 방법	필담(?)
9	雨森東	일본의 관제에 대해 우삼동에게 물으니 답하기를 사양함	필담(?)

17) 2~4번 대화는 연달아 수록되어 있다. 2번 대화에서 필담임을 밝혔으므로 이어지는 3번과 4번 역시 필담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아래 7번 대화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필담이라고 할 수 있다.

10	雨森東	일본의 국서와 관련하여 우삼동이 일본 관품 말하기를 꺼림	필담(?)
11	雨森東	일본의 봉건제도에 관한 대화	필담(추정)
12	雨森東	薩摩州의 풍속에 관한 대화	필담(추정)
13	雨森東	일본과 조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대화	필담(추정)
14	雨森東	각국 언어의 차이에 관한 대화	필담(추정)
15	雨森東	우삼동에게 일본말을 몇 달이면 배울 수 있는지 물음	필담(?)
16	雨森東	우삼동이 일본인들은 문장 배우기가 어려우니 도중에 얻는 글이 줄렬하다고 해서 비웃지 말고 받아주라고 당부함	필담(?)
17	林信智	林信智가 증정한 五言排律 20운	창화시
18	飯田綽	東溪 飯田綽의 贈別詩와 편지	창화시 서신(내용)
19	井上有基	雪溪 井上有基의 贈行詩와 편지	창화시 서신(내용)
20	柱山義樹	鶴汀 柱山義樹가 증정한 古風 1편	창화시
21	源方敬	甘谷 源方敬이 헤어지며 준 오언배울 20운	창화시
22	木實聞	木實聞이 지은 〈仙人篇〉(증별시)	창화시
23	福昌言	鶴渚 福昌言이 증정한 칠언절구 2편	창화시
24	素盈	佐和城에서 龍潭寺 중 素盈과 필담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만나니 그가 증별시를 써 줌	필담 상황 창화시
25	雨森東	壹岐島, 籃島, 地島에서 우삼동이 써 보낸 시(5수), 우삼동의 서신(자신과 霞沼의 시를 풍평)과 저자의 답신	창화시 서신(내용)
26	三宅緝明 三宅石屏	三宅緝明(滄溟)의 서신(『萍水集』의 서문을 써주기를 청함). 滄溟 및 그 아우 石屏 평가. 오사카에서 만나 종일 필담을 한 일 언급. 저자가 써준 절구 2수와 石屏의 시	서신(내용) 필담 상황 창화시
27	林信篤	林信篤의 서신과 그에 대한 평가	서신(내용)
28	性湛	湛長老의 편지	서신(내용)
29	水足博泉 등	재주 있는 동자와 젊은이들(水足童子, 北山童子, 明石景鳳, 河口嶽) 언급. 長澤學과 長澤主 형제가 눈이 멀었는데 시를 잘했음	창화 상황
30	雨森東	男娼에 관한 대화	필담(?)
31	雨森東	琉球國의 풍속과 인물에 관한 문답	필담(?)
32	雨森東	琉球 관인의 시문에 관해 물어서 우삼동이 한 편을 보여줌	필담(추정)
33	雨森東	조선이 일본을 멸시하는 까닭에 대한 대화	필담(추정)
34	雨森東	豐臣秀吉의 공과와 加藤清正의 후손에 관한 대화	필담(추정)
35	雨森東	新井白石의 실권에 대한 우삼동의 유감 표시	필담(?)
36	文士	한 문사가 필담으로 林鳳岡 문도를 폄하함 * [回路驛站, 有一文士來見筆談曰]	필담

이처럼 『해유록』에는 상당한 분량의 필담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해유록』의 서술상의 특징 중 하나로 “필담이나 문답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¹⁸⁾을 들기도 했다. 필담을 포함하여 문답과 대화를 서술의 일부로서 폭넓게 활용한 것이 이 책의 주된 특징임을 지적한 것이다. 『해유록』은 필담뿐 아니라 서신 교류 및 시문창화 상황에 대해서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 일록에는 창화시를 거의 수록하지 않았으나, 문견록에 별도의 항목을 두어 창화시와 서신 가운데 일부를 실어 두었다. 수록 작품의 수가 많지 않지만 저자의 관점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한 글을 선별하여 수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필담창화집의 대화에 의례적인 칭찬이 많은 반면, 사행록에 남긴 평가는 저자의 솔직한 감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신묘·기해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및 시문창화 수록 양상

1) 필담창화의 증대 상황 반영

신묘, 기해통신사 사행록은 17세기 사행록들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한 필담 및 시문창화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실제 필담 교류가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성행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18세기 첫 사행인 신묘사행 시기에는 필담창화의 양적 증가와 함께 그 결과물인 필담창화집의 제작 역시 크게 늘어났다. 임술사행 시기 필담창화집은 모두 13종으로, 『和韓唱酬集』 외에는 모두 필사본이다. 한편 신묘사행 필담창화집은 모두 30종으로 그중 11종이 刊本이다. 11종 간본 가운데는 15권 7책의 『鷄林唱和集』과 10권 7책의 『七家唱和集』이 포함되어 있

18) 이효원, 「『海游錄』의 글쓰기 특징과 일본 인식」,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68쪽.

어서 분량 면에 있어서도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다. 여러 지역, 여러 학파의 문인들이 통신사와 주고받은 필담과 창화시가 두 책에 망라되어 있다. 여기에 끼지 못한 徂徠學派의 문인들은 별도로 『問槎崎賞』을 출판하여 자신들의 학파를 알렸다. 필담만으로 구성된 최초의 의학필담집 『桑韓醫談』이 출판된 것도 신묘사행 시기이다.

또한 신묘사행 시기는 문인으로서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쳤던 아라이 하쿠세키가 의욕적으로 병례 개혁을 추진했던 때다. 그는 삼사와의 필담에 특히 적극적이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사행에게 전달하여 병례 개혁의 타당성을 인정받고자 한 것이다. 〈강관필담〉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필담록이다. 양국인이 필담한 종이는 대부분의 경우 일본 문사들이 거두어갔다. 필담지를 편집해서 필담창화집을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1월 5일 삼사와 하쿠세키의 필담 기록은 사신들이 가져갔다. 대화의 끝에서 하쿠세키는 “오늘 붓 가는 대로 나눈 이야기는 진실로 천 년의 기이한 만남에서의 훌륭한 즐길 거리였으니, 기록해 두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청컨대 자리의 수십 장 종이를 나중에 보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今日隨筆，眞是千載奇會上一善謔，記之亦不惡。敢請席上數十紙，他日幸賜焉。]”라고 하였다. 필담지를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겨둘 것과, 그것을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서문을 보면 사행이 시모노세키(下關)에서 풍랑에 막혀 체류하고 있을 때 임수간이 무료하던 차에 필담한 종이를 꺼내어 차례대로 엮어서 〈강관필담〉을 만들었다고 한다. 11월 3일의 필담을 엮은 하쿠세키의 『좌간필어』에 〈강관필담〉이 부록으로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조태억의 편집으로 되어 있다. 서문 없이 필담록만을 베껴서 보냈기에 정사 조태억을 편집자로 간주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⁹⁾

19) 〈강관필담〉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본고에서 별도로 논의하지는 않겠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응수, 「18세기 동아시아 주변 문화권의 문화적 자각과 중화사상의 쇠퇴 : 〈강관필담〉과 〈혹정필담〉을 중심으로」,

삼사가 필담에 참여하여 필담록을 편집한 일은 신묘사행 시기가 유일하다. 뛰어난 문인 학자인 하쿠세키가 관반으로서 통신사를 응대하였고, 그가 삼사와의 필담에 적극적이었던 것이 그 원동력이었다. 세 사신 역시 그의 학식과 지모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또 하쿠세키가 사행 접대의 책임자였던 만큼 그와의 대화를 단순한 ‘閑談’이 아닌 공식적인 외교의 일환으로 여겨서 피하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다.²⁰⁾ 김현문의 사행록에서 하야시 호코와의 접견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반면 하쿠세키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세 차례의 기록을 남긴 것 역시 그와의 만남을 공식적인 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요컨대 〈강관필담〉의 출현은 신묘사행 시기의 특수한 정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신묘사행 시기에는 실제 문사들과의 교류를 담당한 제술관 및 서기들의 사행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당대 필담 교류의 증대 상황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조태억의 사행시집에 다량의 창화시가 수록된 것 역시 이 시기 필담 교류의 진전과 관련이 있으나, 그가 일반 문인을 널리 상대한 것은 아니었다. 18세기에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본인들의 필담 창화 요구는 기해통신사 사행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해통신사는 신묘통신사로부터 8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파견되었고, 이 때문에 『계림창화집』 같은 거질의 필담창화집이 다시 출판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전체 21종의 필담창화집 가운데 절반인 11종이 간본이다. 신유한과 정후교, 홍치중의 사행록은 모두 제술관과 서기들이 일본인들의 시문창화 요구에 수

『일본문화학보』 3, 한국일본문화학회, 1996; 김대준, 「18세기 한일문화교류의 양상-〈江關筆談〉을 중심으로」, 『논문집』 18(1), 숭실대학교, 1998; 이일재, 「〈江關筆談〉에 대한 일고찰」, 『아시아문화』 19,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3; 구지현, 「1711년 신묘통신사와 아라이 하루세키[新井白石]의 필담을 통한 상호 소통」, 『열상고전연구』 28, 열상고전연구회, 2008.

20) 삼사와 하쿠세키가 필담을 통해 각자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는 점은 구지현(2008), 앞의 논문 참조.

응하느라 숨 돌릴 새가 없었음을 전하고 있다.

정후교의 『부상기행』에 나오는 다음 기사는 당시의 필담창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보기 드문 기록이다.

처음 바다를 건너왔을 때 雨森東이 늘 말했다.

“에도에 十學士가 있는데 관백의 經幄에 나아가는 신하들입니다. 문장과 문학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그 재주를 실로 맞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관소에 머무는 동안 왜 통사가 달려와 전하길, 십학사가 東韓의 문사를 뽑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나와 申(신유한), 成(성몽량) 여러 사람이 나아가 맞이하고 여러 서리들이 인도하여 서로 읊하고 마주 앉았다. 모두 얼굴이 희고 깨끗하며 청수하고 고아하여 훌륭한 선비들임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벼루를 내어와 필담을 하고 성명과 관직을 통하였다. 몇 마디가 끝나자 십학사가 먼저 자신들이 지은 시를 써서 보였다. 우리들이 바로 그 시에 화운하니, 십학사가 또 三七律을 쓰거나 절구를 써서 주어서 우리들도 다시 화답하였다. 이렇게 한 것이 다섯 번이었다. 피차가 손에서 붓을 멈추지 않고 나는 듯이 휘갈겨 잠깐 사이에 채색 종이 수백 조각이 자리 사이에 어지러이 널렸다. 白戰이 바야흐로 무르익어 양쪽 다 물러설 뜻이 없었다. 이때 좌우에서 보는 자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우리들이 그들의 필봉을 쥐을 방법을 의논하여 창화할 때에 따로 어려운 운을 생각해 내어 한 수 내보였다. 십학사가 고민하더니 비로소 머뭇거리는 기색이 있었다. 날이 이미 늦어서 웃으며 일어섰다.²¹⁾

21) 鄭后僑, 『扶桑紀行』, 1719년 9월 29·30일. 渡海初, 雨森東每言“江戶有十學士, 乃關白經幄之臣. 詞翰文學迥出凡倫, 其才固不可當也.” 留館之日, 倭通詞走傳十學士請見東韓文士. 余同申成諸君出迎, 衆胥灣之相揖已對席. 其人皆白潔秀雅, 可知其佳士也. 遂進硯筆談, 通姓名官職. 數語畢, 十學士先草所作詩以示之. 吾輩卽和其韻, 十學士又草三七律或絕句投之, 吾輩又和. 如是者五. 彼此手不停筆, 揮洒如飛, 須臾彩牋數百片繽紛坐席間. 白戰方酣, 俱無退意. 是時左右觀者, 莫不瞪焉自失也. 吾輩謀所以摧其鋒, 相和之際, 別思強韻一首出之. 十學士思索, 始有逡巡之色. 日已晚矣, 相笑而起.” (정후교 지음, 장진엽 옮김, 『통신사 사행록 번역총서13: 부상기행』, 보고사, 2019, 92~93쪽. 원문은 234쪽)

위 기록은 당시의 무르익은 필담창화의 현장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양측에서 쉬지 않고 시를 써대는 장면을 박진감 있게 묘사하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놀랐다고 하며 호쾌한 기상을 자랑하기도 한다. 白戰은 문인들 간에 글재주를 겨루는 것을 말하는데, 일본인들과의 시문창화에 대해 조선 문사가 이렇게 말한 경우는 흔치 않아 주목을 요한다. 18세기에 들어 일본에서 문인 계층이 성장하면서 이들 사이에 조선인들과의 시문창화를 일종의 경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출현했다. 오규 소라이(荻生徂徠)가 『문사기상』에 수록된 창화시에 비평을 가하면서 조선인들의 시를 폄하하고 소라이학과 문인들의 시를 높인 것이 그 시작이다. 1763년 계미사행에 이르러서는 필담창화집의 서문들에서 그러한 경쟁의식을 표출하는 일이 늘어났다. 그러나 시문의 우열을 두고 다투는 것은 일본 문사들의 ‘상상 속의 경쟁’이었을 뿐, 조선 문사들은 대체로 사행에서의 직임을 완수한다는 태도로 창화에 임했다. 그런데 위 정후교의 기록은 조선 문사들 측에서도 일본인들과의 시문창화를 일종의 경쟁으로 생각한 사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필봉을 꺾기 위해 일부러 어려운 운을 냈다는 것은 다른 필담 기록에서 찾기 어려운 솔직한 기록이다.²²⁾

에도의 십학사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홍치중, 신유한의 사행록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홍치중은 “유생 열 명이 또 제술관의 숙소에 모여 창화하다가 갔는데, 이들은 모두 태학두 하야시 호코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아라이 하쿠세키가 실권하고 호코가 외교 문서를 관장하게 된 일을 언급하였다. 또, 호코에 대해 “나이가 들고 순박하고 근실하며 화평의 논의를 주장하여 하쿠세키와는 같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후교와 달리 홍치중은 이들이 호코의 문도라는 데 주목하였다. 한편 신유한은 이날의 모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22) 장진엽, 「『扶桑紀行』의 특징과 鄭后僑의 일본 인식」, 『남명학연구』 61, 경성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9, 213~214쪽 참조.

밥 먹은 뒤에 儒官 10여 인이 와서 대청에 모였다. 나와 세 서기가 나가 접대 하여 서로 읊하고 앉았다. 좌중에서 각각 읊시와 절구를 써 주면서 화답하기를 구하므로, 곧 모두 화답하였다. 저들은 연이어 번갈아 부르고 차례로 화답하여, 혹 변하여 장편을 만들기도 하여 각체가 갈수록 더욱 많아서 쌓인 것이 공문서 더미와 같았다. 김세만을 시켜 옆에 앉아 먹을 갈게 해도 미처 당하지를 못하였다. 모인 자가 하루 안에 각각 3, 4편씩을 지었는데, 나는 외주먹[獨拳]으로 당해 내어 왼쪽으로 수작하고 오른쪽으로 답하면서 여럿의 요청을 채우자니, 草를 잡거나 수정할 겨를이 없었음은 당연하였다. 이튿날 또 수십 명이 와 모여서 시를 부르고 화답한 것이 또한 어제와 같았고 밤이 되어서야 헤어졌다. 그들의 시는 먹던 밥을 밥상에 뿜어놓은 것 같아서 말할 거리도 못 되었다. 그 사람들은 모두 林鳳岡의 문도로서 江都에서 녹을 먹는 자들이라 한다.²³⁾

정후교의 기록이 ‘호슈의 전언-그 인물들이 찾아옴-그들의 첫인상-시문창화의 장면 묘사-헤어짐’의 순서로 속도감 있는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면, 신유한의 기록은 방문객들의 시문이 그치지 않고 쌓여가서 그것에 응하기 위해 고생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유한은 이어서 이때 방문한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중 기억에 남는 이들과의 대화를 덧붙였다. 정후교 역시 위 인용문에 뒤이어 다음날 호코와 두 아들이 방문한 것을 언급하고, 예도에서 만난 문인들의 이름을 열거하였다.

정후교는 『부상기행』 하권에 자신이 일본인에게 화답한 시를 74수 수록하고, 그들의 원운 11수를 수록하였다. 신유한 역시 『해유록』에 시문을 수

23) 申維翰, 『海游錄』, 1719년 10월 3일. 食後儒官十餘人來會大廳. 余與三書記出接, 相揖而坐. 坐中各以長短律絕句寫贈求和, 卽皆和之. 彼因更唱迭和, 或變爲長篇各體, 愈往愈多, 堆積如簿牒. 使世萬坐旁磨墨, 而亦不遑給. 夫使一日之內會者, 人人各得三四篇, 而爲之獨拳枝梧, 左應右答, 以塞群望, 而不待草創而潤色之者固也. 翌日又有數十人來會, 所唱酬亦如之, 至夜乃罷. 詩如噴飯滿案, 無足道者. 其人各自謂林鳳岡門徒而食祿於江都. (번역 및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 참조. 이하 동일)

록하였는데, 대부분은 기행시이고 창화시는 수록하지 않았다. 다만 〈문견록〉에서 일본 문사들의 작품 중 기록할 만한 것들을 수록하였다. 예컨대 이 시기 필담창화집인 『客館璀璨集』에서 신유한이 기노시타 란코의 〈仙人篇〉을 특히 칭찬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해유록』에 바로 이 작품이 실려 있다. 또 신유한은 하야시 호코의 시문 가운데 불만한 것이 없다고 하며 시문 대신 작별 편지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오직 이 편지 한 장이 소박하고 솔직한 데에 가깝다.[唯茲一書, 差近乎朴直之言.]”는 평을 붙였다. 또, 호코의 시는 신지 않고 그의 아들 하야시 가쿠겐(林確軒, 林信智)의 오언 배율을 수록하였다. 작품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후교와 신유한이 일기에서 필담창화 장면을 묘사하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창화시를 수록한 것은 18세기에 들어 필담창화가 성행하였던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필담’을 기록한다는 의식의 출현

필담과 관련하여 18세기 사행록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필담’을 기록한다는 의식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말은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으로서의 ‘필담’이라는 행위의 ‘특수성’과 ‘유용성’을 인식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사행록의 필담 기록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확인된다. 17세기 사행록 수록 필담 기록 가운데 그것이 필담임을 명시한 기사는 7건으로 확인된다. 아래 [표4]는 해당 기사에서 필담 행위를 어떤 용어로 표현하였는지를 예시한 것이다.

[표4] 17세기 사행록에서 필담 행위를 표현한 방식

	시기	제목/저자	일자	필담임을 표현한 방식
1	1624	東槎錄 / 姜弘重	10/25	又有一倭識字者, 書示小紙曰“被擄人居在明鑑地者, 其數極多.”
2			(1625)1/21	朝玄方義成調興來見, 以昨日白金事, 書示辭却之由.

3	1636	海槎日記 / 全榮	10/18	今此接席, 安用譯舌? 片札問答可乎?
4	1643	癸未東槎日記 / (未詳)	7/13	道春及右京等來到館中, 招洪李兩譯, 以小紙所書問曰.
5	1655	扶桑錄 / 南龍翼	10/9	林道春之子林靖函三子稱號者, 來門外請見讀祝官. 許聞其問安答說話, 則書而問之曰.
6	1682	東槎日錄 / 金指南	7/14	有一年少可愛僧人, 頗解文字, 以書問之.
7			9/29	有一儒倭, 列書其國婚喪祭賓等禮, 而來示於余曰

“작은 종이에 써서 보였다”, “종이에 써서 문답하다”, “글로 써서 묻다”, “~을 써서 나에게 와서 보여주었다”와 같은 표현들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 기록 외에 17세기 사행록 21종 가운데는 필담으로 추정되는 대화가 18건 수록되어 있다. 18건 대화 가운데는 ‘曰’이나 ‘問’ 등으로 표현했지만 정황상 필담이 분명한 대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18건의 대화에는 그것이 필담임을 알려주는 표지가 없다. 필담임을 명시한 위 기록들에서도 ‘筆談’이나 ‘筆語’와 같은 용어를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실제로 필담을 통한 의사소통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글로 써서 보여주었다’는 식으로 일회적이고 우연한 대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1682년에는 필담창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인데, 이때도 여전히 ‘필담’이라는 용어는 출현하지 않고 있다. 물론 임술사행 시기의 두 편의 사행록은 역관들의 사행록으로서, 이들이 필담창화에 관여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²⁴⁾

24) 여기서 주목할 점은 ‘書示’ 등의 표현은 누군가가 필담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필담을 하겠다는 상호 간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쪽이 종이에 글을 써서 내밀면서 비로소 필담이 시작되었음을 보이는 표현이다. 대체로 우연히 이루어진 필담에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 이러한 용례는 18세기 사행록에서도 확인된다. 임수간의 『동사일기』와 김현문의 『동사록』에서는 관백의 연향에서 아라이 하루세키가 “在傍書示樂譜之義” 했다고 하였는데, 필담창화 자리가 아니라 음악을 관람하는 도중에 생각지 못하게 글을 적어서 보여주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임술사행 이전까지는 일부러 필담을 하기 위해 만나는 일이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書示’

사행록에 ‘필담’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711년 신묘사행의 기록부터다. 임수간의 『동사일기』 11월 5일 기사에는 “源璵가 술을 가지고 찾아와서 저녁 늦게까지 필담을 하고 갔다.[源璵佩酒來訪，終夕筆談而去.]”라는 말이 나온다. <강관필담>의 서문에서도 “원여가 마중 나와 매우 정성스레 대해주었고, 관소에 머물면서 며칠 동안 찾아와서 함께 필담을 했다.[源璵迎見致款曲，留館中也，數來就之，相與筆談.]”라고 하였다. ‘江關筆談’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임수간이다. 김현문 역시 11월 5일 기록에서 “원여가 술을 가지고 와서 삼사를 뵈고, 종일 필담을 하다가 밤이 깊어서 돌아갔다.[源璵佩酒來謁於三使前，終日筆談，夜深罷歸.]”라고 하였다. ‘필담’이라는 표현은 기해통신사 사행록에도 자주 등장한다. 정후교는 십학사의 방문을 기록한 부분에서 “드디어 벼루를 내어서 필담을 하고 성명과 관직을 소개하였다.[遂進硯筆談，通姓名官職.]”고 하였으며, 예도의 문사들을 열거하면서 “여러 사람이 와서 창수를 하고, 혹 더불어 필담을 했다.[諸人來酬唱，或與之筆談.]”고 하였다. 신유한은 『해유록』에서 ‘筆談’이라는 표현을 열네 차례 사용하였다. 필담 대신 ‘作筆語’라는 표현을 두 번, ‘筆話’를 한 번 썼다. 물론 17세기와 같이 ‘書示’라는 표현도 나타나는데, 네 번에 그치고 있다. 필담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필담’이라는 표현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필어’는 명사로 사용하였고, ‘필담’은 글로 써서 대화를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필담’을 우연한 어떤 것이 아닌 일반적이고²⁵⁾ 유용한 소통의 수단으로

등의 표현은 필담이라는 대화 방식이 아직 정착하지 않은 초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필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표4]의 3번 기사에서는 필담을 나누자고 정식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때도 필담 대신 ‘片札問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25) 이때 ‘일반적’이라는 것은 이들이 필담이라는 소통 방식의 ‘특수성’을 인식했다는 진술과 상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특수성’이라고 한 것은 필담이 ‘구어 소통’과 다른 또 하나의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임을 인식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일반적’이라고 한 것은 필담이 일회적, 우연적인 것이 아닌, 어느 시점에라도 선택 가능한 일반적인

인식한다면, ‘필담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그 대화의 내용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필담이라는 행위, 그러한 소통의 ‘방식’ 자체가 신기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대화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말하였는지가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17세기의 기록들에서 왜인 중 누군가가 문자에 통하여서, 혹은 통역을 통하지 않고 문사들과 긴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쪽지에 무슨 말을 써왔다는 상황 자체를 부각하고 있다면, 18세기 사행록에서는 어떤 인물과의 필담(또는 그의 시와 문)이 불만했는지, 그 내용 중에 기록해 둘 만한 내용이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유록』에 수록된 필담들은 이 시기 필담창화집에서 보여주는 실제 대화의 기록들과 비교하면 그 양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조선 측 필담의 담당자인 저자의 시각에서 선별된 대화들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필담지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 문사들의 요구에 쉴 틈 없이 응하면서도 그 대화의 ‘내용’과 ‘가치’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상기행』 역시 적으나마 필담 및 각종 대화의 현장을 사행록의 서술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이 기록으로 남긴 필담(창화)의 내용들은 일본의 학술 및 문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인물이나 작품들, 그리고 일본 정보, 즉 정치와 사회, 지리, 경제, 풍속 등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한편 서신 역시 넓은 의미의 필담에 속한다. 서신은 즉석에서의 의사소통이 아니라는 점에서 필담과는 차이가 있지만, 언어가 달라 구어로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자를 수단으로 하여 소통한다는 것은 같다. 이때의 서신은 물론 이국인 간에 주고받은 서신을 가리킨다. 임수간의 『동사일기』는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의 일기에 ‘國書請改始末’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놓았는데, 여기에서 쓰시마 도주와 執政, 삼사 사이에 의견 조율을 위하

의사소통의 방식임을 인지했다는 의미이다.

여 수차례 서신을 왕래한 일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삼사가 도주에게 보낸 서신, 집정부에서 관백의 뜻으로 도주에게 보낸 서신, 집정의 편지에 대한 회답의 내용으로 삼사가 도주에게 보낸 글의 전문을 수록하였다. 외교 문제의 해결 과정 전체를 기록으로 남겨둠으로써 사신들의 노력에 대한 증거로 삼는 동시에 이후의 전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기해사행의 흥치중 역시 정사로서 자신의 필담록에 그러한 성격의 서신을 몇 건 수록하고 있다.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예물 수수와 관련하여 집정과 의견이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 도주를 사이에 두고 집정과 서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여기에 편지 내용을 같이 실어 두었다. 『해유록』 역시 일본 문사들과 주고받은 서신을 수록하고 있으나, 외교 절차나 사안과 관련한 공문서의 성격을 지니는 서신들을 수록한 것은 18세기 삼사의 사행록에서 확인되는 한 양상이다.

대개 의례 절차에 관해서는 통역을 통해 뜻을 전달하였는데, 예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삼사가 직접 글을 써서 사행의 공식적 입장을 상세히 전하기도 했다. 17세기 사행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다. 예컨대 1624년 회담검쇄환사는 접반승 기하쿠 겐포(規伯玄方)에게 포로 쇠환에 관한 문제를 써서 보내어 집정 등에게 주선할 것을 청하였다.(姜弘重, 『東槎錄』, 1624년 12월 14일) 1655년 을미통신사는 사예단을 물리치기 위해 여러 관반들에게 사신이 직접 편지를 써서 銀子와 함께 돌려보냈다.(南龍翼, 『扶桑錄』, 1655년 10월 25일) 통역을 믿을 수 없고 중간의 험잡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관련 상황만을 전하고 서신의 원문은 수록하지 않았다. 그 외 안부 인사 등을 위해 서신 교환을 한 경우 그 편지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예들은 있다. 외교와 관련하여 그 정황을 충실히 기록해 두기 위해 서신의 내용을 수록한다는 생각은 18세기에 들어와 나타난 것이다.

외교 절차의 조율은 단순히 예법의 문제가 아닌 두 나라의 체모 및 誠信

외교의 조건에 관한 것이었기에 삼사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신묘·기해통신사의 경우 삼사의 사행록이 각각 1종씩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 대한 사신들의 기록 태도를 전반적으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임수간과 홍치중의 사행록을 통해서 이전 시기 사신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기술 방식이 나타났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인들과의 교류를 담당한 제술관 신유한이 자신의 사행록에 이들과의 시문창화 및 필담과 관련된 기사를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는 것과 동계의 것이다. 즉 서신을 그대로 수록하는 위와 같은 방식 역시 ‘필담’을 기록한다는 의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강관필담>의 편집에는 사신으로서 외교 사안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의식, 그리고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 및 일본 사회의 학술·문화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확보한다는 의도가 함께 나타난다. <강관필담>의 서문에서 임수간은 “(...) 더불어 필담을 했다. 양국이 즐겁게 사귀는 뜻을 말하고, 그 사이에 농담을 하며 웃기도 하여 하루 만에 수십 백 장이 되었다. 비록 붓 가는 대로 쓴 것이지만 왕왕 전할 만한 것이 있었다.[...] 相與筆談. 道兩國交驩之意, 間以諧笑, 一日凡數十百紙. 雖矢筆而書之, 往往有可傳者.]”라고 하였다. 양국이 交驩하는 뜻이란 성신 외교의 태도를 말한다. 간간이 농담을 섞었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우회적으로 전달했음을 뜻한다. 실제 필담의 내용을 보면 중국 및 서양 정보나 의관 복식에 관한 대화, 서불이 가져온 고적 등 양국인의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 사이에 ‘전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그 대화의 내용이 충실했다는 평가이다. 하쿠세키는 당시 관백의 측근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고, 통신사 접대를 전담한 인물이었던 만큼 그와의 대화는 비록 농담이라 해도 기록할 만한 무게를 갖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쿠세키가 필담지를 가져가지 않고 기꺼이 삼사에게 넘긴 것 역시 前後에 없던 일이다. 필담 당사자들의 정치적 입지와 조선 측에서 필담지를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 그리고 18세

기에 들어 일본인들과의 대화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식이 출현한 것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강관필담>을 탄생시킨 것이다.

신묘사행 시기 <강관필담>의 등장은 다소 돌출적인 성과로서 후대 사행에서는 이러한 필담록을 제작한 일이 없다. 앞서 말한 요인들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 없었으며, 그중에서도 필담지를 조선 측에서 가져오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유록』과 같이 사행록의 서술 속에 필담 기록을 상세히 수록하는 방식은 무진사행 시기 『隨槎日錄』(洪景海)을 거쳐 계미사행의 『日觀記』(南玉)와 『乘槎錄』(元重舉)으로 계승되었다. 필담을 기록한다는 의식은 계속해서 심화되었던 것이다.

3) 요약적 서술과 대화 장면의 재현

<강관필담>의 경우 필담창화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필담록이므로 대화의 내용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 필담지를 저본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나 사행록에서는 일기 속에 필담창화 관련 상황 또는 필담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면서 누구와 만나 필담을 하고 시문수창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방식이다. 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히 언급하거나 어떤 인물의 시문이 불만했다는 식의 평가를 덧붙이기도 한다. 창화시를 서술 중간에 삽입하거나, 그날 일기의 끝, 아니면 별도의 권이나 문건록에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서신을 교환한 경우, 그 사실만을 간략히 적기도 하고 서신의 전문을 베껴 쓰거나 일부를 발췌하여 수록하기도 한다. 한편 대화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기억에 의존하여 그것을 복원해야 한다. 그 때문에 사행록 수록 필담은 필담창화집과 달리 요약적 서술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서술방식은 사행록에 필담 및 시문창화 관련 기록을 수록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통신사 사행록뿐 아니라 연행록에서도 독립적인 필담

록의 형태가 아닐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필담을 수록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을 취한다 해도 시기와 저자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서술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창화시나 서신은 저자가 그 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사행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필담의 경우에는 대화의 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없을 경우 상세한 내용을 일기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17세기 사행록에서 서신과 창화시 위주의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18세기에 들어서야 필담을 기록한다는 의식이 출현하였고, 이에 따라 ‘대화의 내용’과 ‘장면’을 일기에 서술·묘사하는 경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대화의 내용과 장면을 기록할 때 그 서술방식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만남의 정황 및 대화의 내용, 필담창화에 대한 평가 등을 저자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한 인물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여러 인물을 같이 언급할 수도 있다. 몇몇 인물을 선별하여 순서대로 언급하기도 하고, 하루의 만남에 대해 서술하거나 여러 날의 만남을 통틀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한다. 기록의 상세함 정도는 저자에 따라 다르지만, 서술방식에는 공통점이 있다. 신묘·기해통신사 사행록에서 이러한 요약적 서술방식을 이용해 필담창화의 내용과 장면을 기록한 예는 다음과 같다.

밤에 들으니 雨森東이 축전 사람 竹田定直, 神屋亨 등을 데리고 와서 제술 관 등과 시를 지어 수창했는데, 시는 말이 되지 않았는데 그 儒家의 학문과 明末 諸家의 설을 논한 한 편의 文에서 서술한 것이 자못 볼 만하여 실로 기이한 일이었다고 한다.²⁶⁾

26) 任守幹, 『東槎日記』, 1711년 8월 19일. 夜聞雨森東率筑前人竹田定直、神屋亨等而來, 與製述諸人賦詩酬唱, 詩則亦不成說, 其文一篇論儒家學問及明末諸家之

홍문원 태학두 겸 국자좌주 林信篤이 그 아들 信充, 信智를 데리고 와서 뵈기를 청하여, 부사와 함께 내 관소에서 맞이하여 서로 읊하고 앉았다. 나이는 금년 76세로서 눈썹이 희끗희끗한데 동안이었으며 사람됨이 순후하고 근실하여 아꼈 만했다. 그 두 아들은 모두 소년인데 막 經筵講官이 되었다. 信篤은 곧 林道春의 손자로서, 文을 담당하는 일을 세습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詞翰의 일을 전적으로 도맡았다고 한다. 부자 세 사람이 각자 품에서 시책을 꺼내어 바치는데, 문필이 불만한 것이 없었다. 주찬을 차려서 대접하고 또 사행의 일이 끝나기 전이라 한مان히 시를 읊는 것이 도리에 편치 못하므로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마땅히 화답하겠다고 하였더니 알겠다고 하고 갔다.²⁷⁾

대관에 머무는 5일 동안 다시 南溟·若水, 三宅緝明 형제와 함께 아침저녁으로 모여 각 體의 시문을 지어서 번갈아 부르고 화답하기에 겨루어 없었다. 남명이 이별의 시를 지어와 東자로부터 咸자에 이르기까지의 평성운을 달았는데, 운마다에 각각 칠언 절구를 지어서 行程을 서술하였다. 나는 ‘가난한 백성이 咸陽의 徭役을 감당할 수 없다.’ 하고, 따로 그의 古歌 두어 권에 서문을 지어 답례하였더니, 若水가 그의 詩藁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서문을 청하므로 내가 또 지어 주었다. 기타 원근에서 글을 청하는 자가 일시에 한꺼번에 이르러, 마치 가난한 사람이 목은 빛에 쫓들리면서 다시 새 빛이 쌓이는 것 같아서 이루 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²⁸⁾

說, 敘致頗有可觀, 誠可異也.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 참조. 번역은 필자)

- 27) 洪致中, 『海槎日錄』, 1719년 9월 29일. 弘文院太學頭兼國子祭酒林信篤, 率其子 信充 信智來請謁, 遂與副使邀見於吾所館, 相揖而坐. 年今七十六歲, 厯眉童顏, 爲人淳謹可愛. 其兩子皆少年, 方爲經筵講官. 信篤卽林道春之孫, 以世襲主文之人, 今方專掌詞翰之任云矣. 父子三人, 各出詩軸于懷中以呈, 文筆則無可觀矣. 設酒饌以待, 且言使事未畢之前, 閑漫吟詠, 道理未安, 竣事歸時, 當奉和云, 則唯唯而去矣. (원문은 홍치중 지음, 허경진 옮김, 『통신사 사행록 번역총서12: 해사일록』, 보고사, 2018, 289~290쪽. 번역은 필자)
- 28) 申維翰, 『海游錄』, 1719년 11월 4일. 留大坂五日, 復與南溟、若水、三宅緝明兄弟, 朝夕會, 爲詩文各體, 更唱迭和無間隙. 南溟作別語, 自東字至咸字沒押平韻, 每韻各得七言絕句以敘行. 余謂“貧不能當咸陽繇”, 別草數卷古歌, 序而謝之. 若水以其詩藁一卷乞序, 余又撰給. 其他遠近徵文者, 一時沓至, 如貧人困漚漚,

첫 번째 예문은 『동사일기』에서 아이노시마(藍島)에서의 필담창화를 기록한 부분이다. 본인이 직접 참석한 자리는 아니었고 제술관 등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찾아온 인물 두 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중 다케다 순안의 文이 불만했음을 말하였다. 순안이 이때 제술관 이현과 학술에 관해 토론한 글이 『계림창화집』에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 예문은 홍치중이 하야시 호코 부자의 방문에 대해 남긴 기록이다. 홍치중은 이들이 방문한 사실과 삼사의 응답을 간단히 썼으며, 호코의 인상과 그의 문필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세 번째는 『해유록』의 기록인데, 돌아오는 길에 오사카에 들렀을 때의 일을 쓴 부분이다. 닷새 동안의 필담창화에 대해 몇 명 문인과의 일을 요약하여 기록하고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전부 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위 인용문 가운데 임수간과 홍치중은 필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 시기의 삼사는 일반 문사들과 접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해사행의 삼사는 태학두 일행과도 그다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홍치중의 사행록에는 위와 같은 요약적 서술이 몇 차례 등장할 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소개하거나 필담창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 없다. [표2]에서 확인되듯이 임수간의 사행록에는 필담창화 사실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기사가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필담록인 <강관필담> 외의 일기 부분에서 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김현문의 사행록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 세 명 저자의 사행록은 대체로 요약적 서술을 통해 필담창화 관련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 방식은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필담 장면을 재현하거나 대화의 내용을 복원하는 서술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부상기행』과 『해유록』에서 확인되는데 양적인 면에서, 또 구체성의 정도에서 신유한의

기록이 이와 같은 서술방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신유한은 연로의 모든 기착지에서 있었던 필담창화에 대하여 거의 빠짐없이 언급하였으며, 요약적 서술과 함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 대화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하거나 상대의 말 중에 인상적이었던 발언을 인용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주고받은 대화를 상당한 분량으로 복원해 놓기도 하였다. 필담지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실제 대화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쓰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이 참여한 필담인 만큼 그 내용은 당시의 필담을 거의 그대로 재현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아래 두 기록은 <문견잡록>에서 인용한 것이다.

내가 우삼동과 필담을 할 때에 묻기를, “일본이 큰 바다 가운데 있는데 혹 《山海經》에 기록된 괴이한 형상을 가진 이상한 무리들이 경내에 표류되어 온 일이 있나요?” 하니, 우삼동이 말하기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장기로 찾아와 장사하는 이들은 아란타와 서양국 사람들인데, 의복과 언어는 비록 같지 않으나 형상은 별로 다른 것이 없고, 단 10여 년 전에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배가 파손되어 표류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배와 행장은 하나도 수습된 것이 없고, 한 남자가 언덕에 닿아 살아났는데 머리털은 긴데 거두지 아니하고 드리워서 이마를 덮었고, 두 다리는 모두 푸른빛인데 무릎에는 슬개골이 없어서 모양이 竹竿 같고, 오곡을 먹지 않고 소금 두어 되를 먹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은 때문에 마침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大荒經》에 玄股國이 있다 하였는데 다리가 청색인 것은 현고라 할 수 있겠으나 다만 소금을 먹는다는 말이 없으니, 상고하지 못하겠군요.” 하였다.²⁹⁾

29) 申維翰, 『海游錄』, <附聞見雜錄>. 余與雨森東筆談時間: “日本在大海中或有異人異物, 如《山海經》所記神怪之狀, 漂到境內否?” 東曰: “海外諸國之來賈於長崎者, 阿蘭陀西洋國諸人, 而衣服言語不同, 形骸則別無異者. 但十餘年前, 不知何處人, 破船漂沒. 其船及裝物, 無一收拾, 有一夫漂岸得生, 髮長不斂, 垂之覆額, 兩脚皆青色, 膝無蓋骨, 狀若竹竿, 不食五穀, 喫鹽數升. 言語不通, 故終未辨何國人而死.” 余曰: “《大荒經》有玄股之國, 脚下青色, 可謂玄股, 而但無食鹽之文, 不可考.”

돌아오는 길에 역참으로 한 문사가 찾아와서 보고 필담으로 말하기를, “공이 강호에 있을 때에 몇 사람의 문사를 보았습니까?” 하여, 답하기를, “林鳳岡의 제자 수십 명을 보았습니다.” 하니, 그 손은 또 써서 보이기를, “내가 듣기로는 임봉강은 시문이 치졸하다고 하던데 제자가 어찌 그리 많답니까?” 하였다. 나는 이미 그 눈치를 알고 곧 종이 끝에다 쓰기를, “말을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더니, 그 손은 앞은 자리 끝에다 직접 글자를 쓰기를, “그들은 가소롭고 가소로운 자들입니다.” 하고, 스스로 필담한 종이를 찢어가지고 갔다. 아마 그도 역시 원여의 당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 뜻을 알게 하려는 것인 듯 싶었다.³⁰⁾

첫 번째 인용문은 해외의 이국에 대해 아메노모리 호슈와 나눈 필담을 재현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유록』의 〈문견잡록〉에는 호슈와의 대화가 상당량 수록되어 있다. 호슈 외에 다른 일본인들의 말을 인용한 것들도 있는데, 일본 정보와 지식의 기록에 있어 신빙성과 구체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통신사 사행록의 저자들은 기존의 사행록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의 문헌을 직접 참조하거나 사행 중에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견록을 제작하였다. 예를 들어 1643년의 종사관 申濡가 林家의 문인들에게 일본의 관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적어서 줄 것을 요청한 일이 있다.³¹⁾ 즉, 필담(서신)이 정보 수집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문견록에서 필담 또는 대화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서술을 구성한 사례는 『해유록』이 유일하다. 이는 신유한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³²⁾인 동시에 아메노모리 호슈라는 인물의 존재 덕분이기도 하다. 호슈

30) 申維翰, 『海游錄』, 〈附聞見雜錄〉. 回路驛站, 有一文士來見筆談曰: “公在江戶, 見幾個詞人?” 答曰: “林鳳岡弟子數十人.” 其客又書示曰: “吾聞林鳳岡拙於詩文. 弟子何其多乎?” 余已知其物色, 卽書紙末曰: “言不可若是.” 客以手畫席作字曰: “彼皆可笑可笑.” 自裂其所寫紙而去. 蓋亦源與之黨流, 而欲使余知其意也.

31) 『韓使贈答日錄』 前集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야시 가호(林鶯峰)가 신유에게 보낸 편지에서 “君於旅館談語筆談, 問本朝事蹟, 手書人物山川草木鳥獸節日冠婚喪祭等條件以授之, 曰‘發軔再明日, 不能詳聞之.’”라고 하였다.

는 쓰시마의 記室로서 일본에서의 여정 내내 사행과 동행하며 각종 시안을 주선하였으며, 필담창화를 원하는 이들은 모두 호슈를 거쳐서 사행을 만나야 했다. 조선어와 중국어에 능통하였고 학식과 재능이 넉넉하여 신유한으로서도 그와 대화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었던 셈이다. 이에 신유한은 호슈와 더불어 일본의 정치, 사회, 풍속, 문화 등에 대해 자주 논하였고, 그것이 문견록을 쓰는 바탕이 되었다.

두 번째 기록에서는 한 일본인과의 에피소드를 그려내고 있다. 인용문의 바로 앞에서 신유한은 호슈가 하쿠세키의 실각을 아쉬워하고 하야시 호코 등을 못마땅해하는 뜻이 있음을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인물들이 더러 있음을 보이기 위해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한 것이다. 여기서 신유한은 자신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눈치챈 경위를 말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말 한마디 한마디 및 그때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객은 처음에 필담으로 하야시 호코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썼다가 신유한의 가벼운 나무람을 받는다. 그러더니 이번엔 종이가 아니라 자리에다가 손으로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롱의 말을 쓴다. 마지막에는 앞에 썼던 필담지를 스스로 찢고 떠났다고 했다. 필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생생한 장면 제시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유록』에는 요약적 서술과 장면 재현의 방식이 모두 나타난다. 하나의 기사에서 두 가지 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날 필담의 전체적인 상황과 분위기에 대해 설명한 후, 각 인물들에 대한 평가 및 그와 나눈 몇몇 대화를 소개하는 방식이다. 대화 중간에 시를 인용하기도 하는

32) 기존 연구에서는 『해유록』의 서사의 특성으로 “‘紀事’·‘紀言’·‘紀物’의 배합”, “에피소드를 통한 ‘眞’의 구현”, “장면제시적 서술”의 세 가지를 꼽고 있다. 필담을 서술에 활용한 것은 이 세 가지 특성 모두와 관련이 있다. 즉, 대화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기안’에 해당하며, 일본인들과의 만남을 대화 내용과 함께 생생하게 묘사했다는 점에서 두 번째 특징과 관련이 있다. 또, 대화체를 사용하여 필담 현장을 재현한 것은 장면제시적 서술의 주요한 양태이다. 이효원(2015), 앞의 논문, 63~94쪽 참조.

데, 긴 작품의 경우에는 〈문견잡록〉에 별도로 수록하였다. 다만 자신이 쓴 증시나 차운시는 거의 수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저자가 생각한 사행록의 저술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행록은 기본적으로 ‘일본 기행문’이다. 그러므로 연로에서 지은 기행시, 즉 일본의 풍물이나 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들은 일기와 함께 수록할 가치가 있다. 또, 일본인들의 작품은 그들의 문화 수준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선별’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차운시는 간혹 서술에 필요한 경우 언급하는 정도로 충분할 뿐, ‘일본’을 알린다는 『해유록』의 목적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여겼던 듯하다. 구체적인 필담 내용을 충실히 전하고 있는 것 역시 사행록의 저술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필담’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즉, 필담 기록이 사행록 전체의 저술 의도 및 서술상의 전략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원증거의 『승사록』으로 계승된다.³³⁾ 18세기 사행록의 필담 수록과 관련하여 『해유록』이 중요한 위상을 갖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4. 맺음말

신묘·기해통신사 시기는 임술사행에 이어 조일 양국의 필담 교류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던 시기이다. 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수록 방식 역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17세기와는 다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17세기 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서술 양상을 살펴본 논문의 후속 연구로서, 특히 18세기 초의 두 차례 사행의 필담 기록에 나타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각 시기 사행록의 필담 수록 현황을 파악하였다. 신묘

33) 장진엽(2020), 앞의 논문 참조.

통신사 사행록은 모두 3종이다. 정사 조태역의 『동사록』은 사행시집인데, 여기에는 74제 95수의 창화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후 사행의 사신들이 일본인과의 필담창화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분량이다. 부사 임수간의 『동사일기』는 독립적인 필담록인 <강관필담>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눈에 띄는 자료이다. 『동사일기』는 일록 부분에서도 필담창화에 관한 사실을 간략히 기록하였다. 김현문의 『동사록』은 삼사의 필담창화 상황 중 주요한 몇몇 일들만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기해통신사 사행록 3종의 필담 기록을 검토하였다. 정사 홍치중의 『해사일록』은 외교 절차의 조율을 위해 집정 및 도주와 주고받은 서신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 그의 사행록을 통해 이 시기부터 삼사가 일본인들과의 시문창화에 거의 관여하지 않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후교의 『부상기행』은 상권 일기와 하권 시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기에서 각 지역에서의 필담창화 사실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였고 하권에 74수의 증시 및 일본인들의 원운 11수를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신유한의 『해유록』은 일기에서 약 70건, <(부)문견잡록>에서 36건의 필담 및 필담창화 관련 기록을 수록하고 있어 필담 수록에 있어 그전까지의 기록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해유록』은 필담을 포함하여 문담과 대화를 서술의 일부로서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저자의 관점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시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묘·기해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수록 양상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신묘·기해통신사 사행록은 17세기에 비해 필담 및 필담창화 관련 기록을 훨씬 더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필담 교류가 성행한 정황을 반영한 것이다. 조선 측에서 직접 필담록을 편집한 것은 <강관필담>이 유일한 사례이다. 이는 당시 통신사 접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아라이 하쿠세키가 삼사와의 필담에 적극적이었고, 삼사가 필담지를 가져올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신

묘사행 시기에는 제술관과 서기들의 사행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사행록에서 여러 문사들과의 필담 교류 상황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18세기에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본인들의 필담창화 요구는 기해통신사 사행록에 여실히 묘사되어 있다. 정후교는 당시의 필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 기록을 남겼으며, 신유한은 연로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있었던 필담창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두 번째는 ‘필담’을 기록한다는 의식이 출현했다는 점이다. 17세기의 사행록에서는 필담 행위를 가리켜 ‘書示小紙’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으며, 필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필담 행위를 일회적이고 우연한 대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신묘·기해통신사 사행록에서는 ‘筆談’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는 구어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선택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필담의 유용성을 인식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인식은 필담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내용, 즉 ‘무엇’을 말했는지에 주목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18세기 사행록에서는 필담 상황 자체에 대한 강조보다는 어떤 인물의 시문 또는 그와의 대화 내용 가운데 무엇이 ‘기록할 만한 것인지’를 부각하는 데에 서술의 초점이 옮겨지게 된다. 서신 교환의 의도 역시 이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사신들의 사행록에서 외교 사안의 해결 과정에 대한 ‘증거’로서 서신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8세기 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서술방식을 살펴보았다. 사행록에 필담을 수록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기억에 의존하여 필담 내용을 복원해야 하므로, 그것을 기록하겠다는 의식이 없을 경우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기 힘들다. 17세기 사행록에서 주로 서신과 창화시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18세기에는 필담을 기록한다는 의식의 출현과 함께 대화의 내용과 대화 장면을 일기 속에 재현하는 방식이 등장하게 된다. 이때 그 서술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전체적인 필담 상황과 대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물의 말을 순서대로 제시하면서 대화 장면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방식은 이 시기 사행록에서 전반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후자는 『부상기행』에서 일부 나타나고 『해유록』에서 전면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유록』은 특히 〈문견잡록〉에서 이러한 방식을 빈번히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본 정보의 전달에 있어 신빙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신유한은 필담의 내용과 함께 일본인들의 시문과 서신 가운데 뛰어난 글을 문견록에 수록하고 있다. 반면 자신의 시문은 기행시 위주로 수록하고 차운시는 넣지 않았다. 이는 ‘일본 기행문’으로서의 사행록의 성격을 고려한 편집 방식으로서, 필담 기록이 사행록 전체의 저술 의도 및 서술상의 전략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 원중거의 『승사록』 등 후대 사행록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필담의 기록과 관련하여 18세기 사행록에서 『해유록』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18세기 통신사, 그중에서도 전반기인 신묘·기해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수록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시기에 들어 ‘筆談’이라는 의사소통 수단 of 유용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물을 ‘기록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8세기에 들어 조선의 지식층 사이에 해외 지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여기에 통신사행과 연행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때 ‘필담’이라는 의사소통의 수단은 조선의 문사들이 타국인을 소통의 상대로서 인지할 수 있게 해준 최초의 발판이 아니었을까. 18세기의 첫 사행의 기록에서 ‘筆談’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 그리고 곧이어 (필담 기록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빈약했을지도 모르는) 『해유록』이 나왔다는 것은 특별히 의미심장하다. 이 점은 후대의 통신사 사행록, 그리고 연행사 사행록의 필담 기록을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볼 직하다.

참고문헌

- 金顯文, 『東槎錄』. (김현문 지음, 백옥경 옮김, 『동사록(東槎錄)』, 혜안, 2007, 1~356쪽.)
- 申維翰, 『海游錄』, 《海行摠載》, 한국고전종합DB.
- 任守幹, 『東槎日記』, 《海行摠載》, 한국고전종합DB.
- 鄭后僑, 『扶桑紀行』. (장진엽 옮김, 『통신사 사행록 번역총서13: 부상기행』, 보고사, 2019, 1~422쪽.)
-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 《海行摠載》, 한국고전종합DB.
- 趙曦, 『海槎日記』, 《海行摠載》, 한국고전종합DB.
- 洪致中, 『海槎日記』. (허경진 옮김, 『통신사 사행록 번역총서12: 해사일록』, 보고사, 2018, 1~524쪽.)
- 『韓使贈答日錄』, 부산시립도서관 소장본.
- 구지현, 「1711년 신묘통신사와 아라이 하루세키[新井白石]의 필담을 통한 상호소통」, 『열상고전연구』 28, 열상고전연구회, 2008, 187~225쪽.
- 김태준, 「18세기 한일문화교류의 양상-〈江關筆談〉을 중심으로」, 『논문집』 18(1), 숭실대학교, 1998, 5~30쪽.
- 박희병·이효원 외, 『18세기 통신사 필담1 - 1711·1719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1~458쪽.
- 이원식, 「朝鮮通信使의 訪日과 文化交流 : 使行錄과 筆談唱和集을 中心으로」, 『모산학보』 2, 동아인문학회, 1991, 23~48쪽.
- 이일재, 「〈江關筆談〉에 대한 일고찰」, 『아시아문화』 19,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3, 163~205쪽.
-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1~468쪽.
- 이효원, 『『海游錄』의 글쓰기 특징과 일본 인식』,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1~214쪽.
- 장진엽, 「『扶桑紀行』의 특징과 鄭后僑의 일본 인식」, 『남명학연구』 61,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9, 189~241쪽.
- _____, 「원증거의 『승사록』 소개 필담 검토 -서술 의도와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79, 한국한문학회, 2020, 363~399쪽.
- _____, 「동아시아 필담문헌 기초연구 : 17세기 통신사 사행록의 필담 및 시문 창작화 수록 양상」, 『온지논총』 71, 온지학회, 2022, 9~63쪽.

정응수, 「18세기 동아시아 주변 문화권의 문화적 자각과 중화사상의 쇠퇴 : <강관필담>과 <혹정필담>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3, 한국일본문화학회, 1996, 355~380쪽.

조영심, 「趙泰億의 使行文學 연구 -對日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1~76쪽.

高橋昌彦, 「朝鮮通信使唱和集目錄稿(一)」, 『福岡大學研究部論集A: 人文科學編』 6(8), 福岡大學研究推進部, 2007, pp.17~35.

_____, 「朝鮮通信使唱和集目錄稿(二)」, 『福岡大學研究部論集A: 人文科學編』 9(1), 福岡大學研究推進部, 2009, pp.21~40.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http://waks.aks.ac.kr>), '부상록[3]' 항목. 검색일: 2022.3.23.

ABSTRACT

Brush Talks and Poetry Exchange in Travel Journals by
the T'ongsinsa of 1711 and 1719

Jang, Jin-youp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brush talks and poetry exchanges included in the 18th century travel journals produced by the T'ongsinsa (通信使, the Chosŏn envoy to Tokugawa Japan) of 1711 and 1719.

First, the brush talks from the T'ongsinsa travel journals of each era were examined. The T'ongsinsa of 1711 produced three different records. Cho Tae'ok's *Tongsarok* includes exchanged poetry—95 verses under 74 titles. Im Sukwan's *Tongsailgi* contains an independent account of brush talk titled *Kangguanp'iltam*, while Kim Hyŏnmun's *Tongsarok* only documented significant episodes from the brush talks and poetry exchanges. Regarding the T'ongsinsa of 1719, the letters exchanged while negotiating diplomatic procedures were included in *Haesaillok* by Hong Ch'ijung. Chung Hukyo's *Pusanggihaeng*, in its diary portion, provided summarized accounts of the brush talks and poetry exchanges that took place in each era, and then provided 74 verses of exchanged poetry and 11 verses of original rhymes written by the Japanese. Sin Yuhan's *Haeyurok* contains nearly 70 entries in diary, and *Munkyŏnjapnok* provides 36 accounts of brush talks and poetry exchange, showing a clear difference from the records produced in the previous era.

Three aspects of the inclusion of the brush talk in these travel journals—produced by the T'ongsinsa of 1711 and 1719—are noteworthy. First, the T'ongsinsa travel journals of this period include more accounts of brush talks, as more such talks were held then. Second, people were becoming more open to the idea of leaving records of the brush talks. The term “brush talk” (筆談) appears frequently in the travel journals of this era, implying its increased recognition as a mode of communication

that c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spoken word. Such notion led to a greater focus on “what was being said” in the brush talks than the mere fact that they occurred. The third aspect relates to the characteristics of narrative style. There are two stylistic characteristics apparent in 18th century brush talks in T’ongsinsa travel journals: recapitulation and reproduction of conversation. The former was widely used in T’ongsinsa travel journals of this era, while the latter was partly employed in *Pusanggihaeng*, and openly utilized in *Haeyurok*. *Haeyurok* in particular strategically employed the records of the brush talks in relations to the purpose of writing his travel journal—an important characteristic succeeded by the travel journals of later eras, including Wŏn Chunggŏ’s *Sŭingsarok*.

The most crucial trait of the records of brush talks in 18th century T’ongsinsa travel journals is that an active consciousness formed regarding the utility of “brush talks”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that its end product came to be employed as an object “worth documenting.” These findings may well be given consideration when examining the accounts of brush talks from Chosŏn envoys’ travel journals produced in later periods.

Key Words

brush talk, poetry exchange, T’ongsinsa travel journal, 18th century, Chosŏn envoy to Tokugawa Japan, *Haeyurok*

논문투고일	: 2022.03.28.
심사완료일	: 2022.05.01.
게재확정일	: 2022.05.02.